

독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고난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좁은 길을 가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2월 14일 (토) 제 152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신앙 재 각성...40일간의 절제 기간

#### 2015년 사순절 2월 18일(재의 수요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경건의 삶을 보내는 절기 사순절이 올해는 2월 18일(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된다.

사순절의 유래는 초기 교회사 또는 로마가톨릭교회에 속했던 중세기부터 전래된 것으로, 죄를 참회하고 절제하고 자기훈련을 하며 부활절 전까지 육식을 하지 않으므로 경건의 훈련을 했다.

사순절 기간이 40일로 처음 결정된 것은 AD 325년 니케아 회의(council of Nicea)에서였다. 때문에 교회역사 가운데는 사순절이 꼭 40일이 아닌 경우도 많았다.

과거 동로마 교회에서는 부활절 준비기간으로 7주를 지키되 토요일은 제외하고 주일도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임하신 성 주일만을 포함해 36일을 이 기간으로 지켰었다. 서로마 교회도 6주간을 지키되 주일을 제외한 36일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이러한 관습은 니케아 회의 후에도 계속돼 얼마 동안은 오늘날과 같은 40일간의 절기 지키지 않았다.

그 후 7세기 무렵 서로마 교회가 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첫 주일까지의 4일을 포함하면서부터 오늘날과 동일한 40일간의 사순절을 철저히 지키게 됐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날은 재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 속죄일 등으로 불리워진다.

사순절의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모셨는가 반성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자기반성에서 얻은 모순 제거에 인색하지 않아야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경건의 삶을 보내는 사순절이 2월 18일 부터 시작된다.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Lent)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 Lang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Lenz와 함께 '봄'이란 뜻을 갖는 명칭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희랍어인 '테살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한다. 이는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해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의 의미를 지닌다.

'40'이란 수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 40일간 시나산에서의 모세의 금식,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예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한다. 이에 고난 주간을 포함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해 수난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재 각성하고자 40일간의 절제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사

순절에 다시금 그 무한한 사랑에 불감해야 하고, 나의 몸을 고난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중심에 서있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를 찾는 일에 사순절 교회교육의 중심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사순절이라는 형식에 매달리기보다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잊기 쉬운 경건의 모습을 이 기간 동안 만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사순절의 참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특히 올 사순절은 가족 모두가 함께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가져봄이 어떨까? 예튜넷사이트 교육개발원(원장 김만형 목사)이 제공하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사순절 경건훈련'에 의하면 사순절을 앞두고 자녀들과 함께 집안정소를 권한다.

<2면으로 계속>

### 새로운 악의 축 IS...하나님 뜻에 맞게 대응하라

#### CT, 크리스천으로서 신중하고 냉정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밝혀

이미 '악의 축'으로 분류됐던 독재국가들의 위상을 무색하게 만든 '이슬람국가(IS)'의 세력 확장에 따른 무력행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들의 총구는 이제 비단 서방세계에 대한 조준에만 그치고 있지 않다.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의 참수 영상을 공개한 지 이틀만인 3일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를 불태워 살해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특히 인질 처형이 미국 주도의 IS 공습에 직, 간접적으로 동참한 국가에 집중되고있어 해당 국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년 만에 알카에다에 버금가는 테러단체로 떠오른 IS는 이미 중동을 넘어 국제사회의 최대 위협으로 떠올랐다. 탈레반 근거지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며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서도 IS에 충성을 맹세하는 단체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악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IS 격퇴를 위한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전선(62개국 참여) 단위의 지상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IS 주요 거점이나 요충 지역에 대규모 공중 폭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크리스천티투데이 역시 IS의 확장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군사적 응징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 보다 신중하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Why ISIS Must Be Stopped).

### 전면적 지상전 검토...과연 옳은가?

머릿속으로 좀 오싷한 실험을 해보자. 역사의 수정 구슬을 들여다보면서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음산하게 지켜본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중동의 크리스천들이 중무장한 포악한 테러집단에게 잔인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수 세기 동안 평화롭고 신실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테러집단이 그들을 말살하고 축출하려 한다. 이 무자비한 테러집단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더 상상해보자. 미국은 이 테러집단의 공격을 막고 이곳에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군사력을 사용해야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미국은 파병을 해야 할까?

생각의 실험을 한 번 더 반복해보자. 그렇지만 이번에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공

동체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공동체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다시 한 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대량학살을 막기 위해서 미군을 보내야 할까?

당신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한번쯤 자기성찰을 해보아야 할 것 같다. 왜 우리는 크리스천들을 보호해야 할 때만 국가가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찬동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종교적 소비니즘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종교를 갖 대로 대외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3면으로 계속>



IS 여성 전사는 허구에 불과하다

2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지역 현장을 찾아서  
새생명교회

16면

# 피종진 목사 초청 2-3월 성회일정

### 2월

- 1(주일) 오후 서울 글로벌복음교회(이애라 목사) ☎ 010-4870-7572
- 2(월) 정오 연합총회신학교(총장 피종진 목사, 화장 박종우 목사) 장소: 부천 소사구청 대강당 ☎(032)344-3313
- 2(월) 오후 부천 행복교회(이화평 목사) ☎(032)344-3313
- 2(월)-4(수) 경기도 광주 함빛중앙교회(권무인 목사) ☎ 010-9271-7479
- 4(수) 오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상은 목사)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5(목)-6(금) 논산 비전선교센터(원장 정민철 목사) ☎ 010-5589-9191
- 9(월)-11(수) 경기도 광주 성산기도원(원장 김형용 목사) ☎ 010-2235-3927
- 12(목) 오후 서울 남천교회(이춘평 목사) ☎ 010-5589-9191
- 13(금) 오후 교향 주소망교회(이범만 목사) ☎(031)967-8230
- 15(주일) 오후 오산 한세교회(김인식 목사) ☎ 010-5555-0691
- 15(주)-17(화) 새창원혜교회(피은혜 목사) ☎ 010-8540-8642
- 제188차 해외성회(188th Overseas Assembly)
- 23(월)-25(수) 미국(U.S.A) 뉴저지 벨빌장로교회(전경영 목사) ☎(609)707-2788
- 26(목) 오후 미국(U.S.A) 필라델피아 글로벌장로교회(김경순 목사) ☎(267)575-5617
- 27(금) 오후 미국(U.S.A) Global Mission College ☎(215)782-1117
- 28(토) 오후 미국(U.S.A) 남가주주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 ☎(323)708-9191

### 3월

- 1(주일) 오전 미국(U.S.A) LA 안디코교회(지용성 목사) ☎(818)951-6172
- 1(주일) 오후 미국(U.S.A) 남가주주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 주최 3.1절 연합예배 장소: LA 콜서연합감리교회(정영희 목사) ☎(323)931-9133
- 광주 삼룡선교센터(고정일 목사) ☎(062)432-6392
- 대한민국어머니기도협의회총연합회(총회장 이애라 목사) ☎ 010-4870-7572
- 5(목) 저녁 안산 복음교회(안영철 목사) ☎ 010-9274-0991
- 6(금) 오전 한국기독교평신도연합협의회(대표회장 심영서 목사)
- 8(주일) 오후 서울 글로벌복음교회(이애라 목사) ☎ 010-4870-7572
- 제189차 해외성회(189th Overseas Assembly)
- 9(월)-11(수) 미국(U.S.A) LA 남가주주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 영성세미나 ☎(213)381-7755
- 12(목)-13(금) 미국(U.S.A) LA 연합세미나
- 16(월)-18(수) 필리핀(Philippines) 앙겔레스제일교회(오세일 선교사) ☎ 070-8231-4862
- 19(목) 오전 필리핀(Philippines) 레인보우신학대학교(장희열 선교사) ☎ 070-7518-5977
- 19(목)-21(토) 필리핀(Philippines) 목회자 & 선교사세미나(대회장 장희열 선교사) ☎0929-453-5977
- 22(주일) 저녁 서울 꽃동산교회(김종준 목사) ☎(02)937-8334
- 주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전국남전도회연합회(회장 김기주 장로)
- 23(월)-27(금) 베트남(Vietnam) 호치민시 기독교유연성교회(대회장 정요한 목사) ☎ 010-5721-7004



# 시론

## 자유롭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어떤 젊은이가 수도원에 임회 하겠다고 찾아오자 수도원의 나이 든 수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금화 세뇨이 있다 하면 그것을 가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느냐?" "그럼요, 마음으로 부터 모두 주겠습니다." "그러면 은화 세뇨이 있다면 어찌하겠느냐?" "그것도 기쁘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었다. 동전 세뇨이 있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러자 젊은이는 고민합니다. 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젊은

이여, 금화도, 은화도 아닌 어찌 동전 세뇨이에는 그렇게 주저하느냐?" 그러자 그 젊은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만은 안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또 왜냐?" "현재 제가 가진 게 바로 그 동전 세뇨이거든요."

현재 나에게 없는 것은 포기하기 쉽습니다.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재 나에게 있는 것들을 포기하기란 생각보다 그리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그의 관심은 영생입니다. 그들은 선한 일, 계명을 지키는 일 등을 대화를 나눕니다. 청년은 모두 다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때 그는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에 가득차 떠나갑니다(마 19:16-22). 예수님은 또다른 한사람을 만나십니다. 삭개오입니다. 그는 키가 작아 뿔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자기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를 영접하며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부자니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고, 내가 세리로서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눅 19:1-9).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고? 혹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셨기에 그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자원하여 내려놓고 나눌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여기에 나의 모습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갑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펼칩니까? 내가 지닌 자존심, 자아, 욕심, 욕망, 탐욕 등을 예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건강, 지식, 지혜, 경험, 물질, 명예, 권력, 힘 등을 세상에,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내 생애 가장 귀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소녀 둘이 해변가를 걷습니다. 한 소녀가 너무나도 예쁜 조개를 줍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부러워는지 자기에게 달라고 하지만 이 소녀는 꿈쩍도 안합니다. 조금더 가다가 이 소녀는 다시 진주를 발견합니다. 이 소녀는 너무나 기뻐 자기가 가진 예쁜 조개를 친구에게 선물 줍니다. 진주를 발견한 이상 예쁜 조개는 더 이상 소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도 절대 진리요 가치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빌3:7-8) 예수를 만났기에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연 삭개오의 모습 안에, 진주를 발견하고는 조개를 선물 내려놓을 줄 아는 한 소녀의 모습 안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의 모습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하지 않나요? (3면으로 계속)

# IS 여성 전사는 허구에 불과하다

## 가디언, "여성 존재이유는 후손 생산 양육하는 것" 보도

이라크와 시리아에 기반을 둔 전세계 지하디스트 운동의 지도조직 이슬람국가(IS)는 크기가 거의 벨기에 국토면적과 맞먹는다. 석유 암거래 등 자족적인 경제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전세계 급진주의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IS의 급진주의자 모집에는 여성들도 포함된다. 특히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성전주의를 거행하는 여전사" 이미지를 내세워 여성들에게까지 테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슬람국가와 같은 테러 단체에서 여자의 존재 이유는 오직 후손을 생산하고 양육하는데 있다고 밝힌다(Female jihadis publish guide to life under Islamic State: English translation of Isis women's manifesto is published by all-female al-Khanssaa Brigade). 따라서 IS 소셜 미디어에 등장하는 여전사의 활약상은 완전히 다른 실제 여성들의 모습을 고발한다.



"9세가 되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교육은 15세까지만 받는다. 미용실과 옷 가게는 악마의 작품이다. 일하러 나가면 타락한 사고 방식에 몰린다. 집에 머물러라. 여자의 존재 이유는 후대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다."

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살펴보면 '지하디스트(이슬람성전주의자)의 신부가 처한 실상과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선언문은 "여성은 언제나 감춰지고, 가려진 채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장막 뒤에서 사회를 관

법학(피크), 아랍어 읽기와 쓰기, 기초과학(계산과 자연과학) 교육을 받는다. 10-12세가 되면 종교 교육이 강화되고, 음식과 의복 만들기 등 가사 교육이 추가된다. 13-15세는 이슬람 율법(샤리아) 교육에 집중하면서 이슬람의 역사, 선지자 무

성전에 참여할 남자가 없어 여자가 나서야 할 때나 종교 공부를 할 때, 여자가 의사 또는 교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 밖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캘리포니아주 "무슬림 여성의 근본적 역할은 어머니와 주부라는 계

## SNS 통해 "성전주의 거행하는 여전사" 이미지 내세워 지하디스트와 결혼 서방여성 550명 이라크 시리아 입국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최근 여성의 역할과 행동 규범, 그리고 금기사항을 담은 1만자 분량의 선언문을 공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5일 보도했다.

IS의 여성 부대 '알칸사 여단'이 지난달 아랍어로 펴낸 이 선언문은 영국의 반극단주의 싱크탱크 캘리포니아에 의해 영어로 번역됐다.

'IS의 여성들: 선언과 사례연구'

조할 것을 권고했다. 또 모든 여성은 후대를 생산, 양육하는 것을 존재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IS에 합류한 서방 여성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과시하는 활약상과는 판판이다.

합법적인 결혼이 가능한 여성의 나이는 9세다. 대부분의 순결한 소녀는 16-17세에 20세 이하의 젊은 남성과 결혼할 수 있다.

7-9세 소녀들은 종교와 이슬람

함마드의 삶 등을 배운다. 이때부터 양육법을 가르치고, 과학 교육의 비중은 점차 줄어든다. 15세에 도달하면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여자들을 망치는 서구식 생활은 절대 금지다. 선언문에 따르면 집 밖에서 일하는 여자는 종교를 멀리하고, 타락한 사고방식과 부적절한 믿음에 빠지게 된다. 옷 가게와 미용실에 만연한 도시화, 현대화 등의 풍조는 악마의 작품이다.

선언문은 그러나 지하드(이슬람

선언문의 요지"라면서 "서방 출신 여성 지하디스트들이 젊은 여성들을 IS로 유인하려고 내세우는 '짜릿한 모험은 남자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싱크탱크 전략대화연구소(ISD)에 따르면 지하디스트와 결혼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 입국한 서방 여성은 5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자에 맞춰 주의 만찬과 세족식 등 온 가족이 모여 실습해보는 것도 자녀들에게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

(편집부)

(1면에서 계속) 고난주간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일을 알려주고, 사순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집을 청결케 하면서 사순절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모임 날에는 찬송가CD를 틀어놓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성경책과 찬송가, 개인용 필기구, 큰 도화지 등을 준비하고 모임을 마친 후에는 가족관찬을 갖는다. 시작할 때 자녀들로 하여금 준비한 양초를 키게 한다. 그리고 부모가 기도로 시작한다.

다음은 성경을 찾아 읽는다.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13, 출애굽기 34:28, 사도행전 1:3, 디모데전서 4:7-8절을 읽으며 사순절에 대해 설명한다. 또 고난주간과 종려주일

등에 대한 설명을 하며 인도는 부모가 교대로 하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사순절 달력을 많이 만든다. 사순절 묵상집도 교단별로 제작하고 있다. '사순절 가족 달력'은 큰 도화지에 그림이나 도표를 그려 만든다. 계획에는 매일매일 할 일들, 자기가 하기로 계획한 일이나, 읽을 성경(사복음서 중 선택), 또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계획한 행사들을 표시한다.

사순절 달력을 만들 때는 부모의 생각을 일반적으로 반영하려 하지 말고 자녀들의 계획을 듣고 부모가 도와주는 방법으로 한다. 이 때 자녀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제안하거나 계획을 하려한다면 부모가 적절하게 조정한다. 계획을 기록할 때 온 가족이 함께 지킬 계획과 각자의 계획을 구분해 기록한다.

가족 달력은 큰 도화지 위에 과일 나무를 크게 그린 후 날짜별로 40개의 열매를 그려 넣고 그 위에 계획을 기록해 만들거나, 도화지 위에 색종이를 요일별로 오려 붙인 후 색종이 위에 계획한 내용을 기록해서 만들 수도 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 (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 (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 2015년 봄학기 특강안내

**D.Min (박사과정)**

- ▶ 3월 특강 (March 16-20, 2015)  
CL 810 Global Strategic Leadership  
Dr. Youngsoo Park
- ▶ 4월 특강 (April 20-24, 2015)  
CC 843 Current Issues in Counseling and Psychology  
Dr. Jong Cheon Lee

**Church Music (박사과정)**

- ▶ 6월 특강 (June 9-21, 2015)  
CM 827 Church Music and Literature  
Dr. Dae Gweon Kim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강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 IS 격퇴 미국 주도 국제연합전선 지상전 초읽기

## CT, 크리스천으로서 신중하고 냉정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밝혀

(1면에서 계속)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동료 신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더욱 가슴 아파하는 것도 사실이다. 탄압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 때도 가슴 아파할 것이지만,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만행인 것이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잔인한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작년 여름 국제사회는 이슬람국가라는 이름으로 이슬람 성전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테러집단이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를 무자비하게 장악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이슬람국가라는 점령 지역에서 칼리프 제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극도로 엄격한 이슬람법을 도입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품은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다고 자신을 책망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왜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끄는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호할 것을 군인들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영웅적 군인들이 적적으로 밀고 들어가서 나쁜 놈들을 짓밟는 꿈을 꿀 수는 있다. 그러나 탄압을 받고 있는 크리스천들과 탄압을 가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려고 그들이 입대한 것은 아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예상된다. 그리고 상황이 크리스천들에게 더욱 위태롭게 작용한다면, 미군에게 보복의 천사가 되라고 요청하는 유혹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아야 하는 현실은 이것이다: 지구촌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대량학살과 추방에 직면하는 상황을 목격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현실을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미국에 있더라도 말이다. 악몽 같은 생각이고,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메시아께서도 그분의 처지를 구하기 위해 천사를 소집하지 않으셨다.

정의가 비 같이 내려 악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른 일이다(시편을 보라). 하지만 누구를 적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중



## 오바마, IS 주요 거점 요충 지역에 대규모 공중폭격 의회 승인 기다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이슬람국가에 반대하는 무슬림과 야지드 같은 극소수 종파와 함께—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집을 버리고 떠나거나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아니면 순교하거나.

우리는 이슬람국가를 막아야 한다.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런데 지금? 누가? 어느 정도로? 우리는 이 질문들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답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고통당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내세우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 괴물들이 크리스천을 학살하고 있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

이슬람국가를 제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무엇"이 군사적 움직임이라면,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난민들이 압박한 대량학살을 피할 수 있도록 공습을 명령했다. 하지만 전면공격을 가하더라도 이슬람국가를 제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확보하고 인도주의적 제약을 막기 위해서는 이슬람국가를 지도에서 쓸어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특정한 적을 무찌르려는 (유일한 또는 주된) 명분이 그들이 크리스천들을 탄압하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입대 선서는 국내외의 적에 맞서 헌법을 수

평향대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의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군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가톨릭 보수주의자 로버트 조지가 선봉에 선 최근의 종교인 청원운동은 균형을 깨뜨린 행동이다. 러셀 무어(남침례교), 에릭 매택시스(작가), 그리고 짐 맬리(포커스온더피밀리) 같은 복음주의자들도 서명한 이 청원운동은, 특정 종교의 분위기는 전혀 내고 있지 않더라도, 이슬람국가를 제거하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한다.

중동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협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교적 집단이든 아니든 우리가 보고 있는 집단이 총과 칼을 들고 위험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집단은 불의한 악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불의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공격할 때는 언제나 그 불의를 막아야 하는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이슬람국가 같은 집단에 맞서 군사적 힘을 행사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조준을 삼자선 안에 있지 않았다면 권고하지 않았을 행동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권고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시론

(2면에서 계속)

필리핀 빈민 마을 캄펜에서 20여 동안 빈민들의 친구로 살아오신 흥성욱 선교사와 사모이신 김한나 선교사가 계십니다. 김한나 선교사가 2월 초순에 10여일동안 제가 시무하는 교회에 머물다 가셨습니다. 같이 지내시는 동안 식사를 많이 못하셔서 여쭙보니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위암수술을 하셨고 지난 1월에는 자궁암 수술을 하였고, 흥

성욱 선교사는 2년전 치아가 모두 빠져 2년에 걸쳐 치아를 해넣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과의사, 방송국 아나운서, 수상을 거듭한 앞길 활짝 열린 뮤지컬배우 겸 작가, 연출가 등등 세상적으로 눈에 띄는 모든 스펙들을 가진 김한나 선교사였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계적 빈민촌 가운데 하나인 캄펜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동거동락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이 분의 모습에서 삭개오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진주를

발견한 소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세상의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내 인생 최고의 진리이자 가치인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늘 기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눅19:1) 그분들은 세상의 그 무엇에도 기죽지 않고 자유하십니다(엡8:32). 주님께서 도우시는 이런 분들을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

니까?(히13:6)  
201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안에 삭개오와 바울과 소녀와 선교사의 모습들이 점점 자라나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그래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뚫고 나가 승리하며 사는 멋진 한해가 되시기를 마음 나눕니다.

## 소망 칼럼

###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영국의 어떤 과학자가 학생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치려고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다가 다음과 같이 써 놓았다. "NOWHERE IS GOD" 그 뜻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학생들 중에 믿는 사람이 나오더니 과학자가 써 놓은 것을 "NOW HERE IS GOD"이라고 띄어쓰기만 고쳐 놓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뜻의 말이 되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안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확신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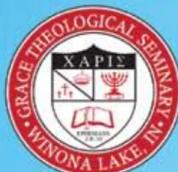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전12:13). 전도자는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쓰면서 그동안 자신이 많은 목상을 하고 얻은 바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을 했지만 그것들을 모두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12:14)고 하였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매일 매시간 의식주 생활을 위시하여 그때그때의 모든 일을 당하여 때마다 일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기에 사람은 한 평생 살면서 행동은 '자유'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는 자유가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은 인생 최고의 지혜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결판"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진리에 대한 확증이며 감추인 것을 들어내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주요 사람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이용하여 살고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이다.

일본인 기무라 목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 갔을 때 어느 미국인이 자랑하며 물었다. "자, 어때요? 굉장하지요? 일본에는 이런 폭포가 없지요?" 그러자 기무라 목사는 이렇게 대꾸했다. "뭐라구요? 이 폭포는 우리 아버지 것이요." 이 말을 들은 미국인은 깜짝 놀라며 자기가 미국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나 하고 그를 인디언 추장의 아들인가보다 라고 생각했다. 원래 '나이아가라'라는 이름을 인디언이 지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은 다시 물었다. "당신 아버지는 대체 누구요?" 그러자 기무라 목사는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후 며칠 뒤 미국인은 나이아가라 부근에 있는 교회당에서 기무라 목사를 초청하여 설교를 듣는 설교집회 광고문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금일 오후 8시부터 기무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 기무라 목사님의 아버지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우리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영거술이라는 무신론자가 임종할 즈음에 그의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세상에 더 사실 것 같지 않은데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무신론자가 되어 아버지를 따를까요? 어머니를 따라 예수를 믿을까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주장하는 무신론은 허무한 것이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즉 너는 네 어머니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 2015 봄학기 수업 안내

Feb 16-20(2월 16 -20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eb 23-27 (2월 23-27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DI8310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기독교에 호의적인 황제 - (3) 테오도시우스

테오도시우스! 그는 스페인에서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는 후에 장군이 된 플라비우스 테오도시우스였다. 부모는 조부모 때부터 기독교를 믿은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당시 유능한 로마제국의 장군으로 368년 브리타니아에서 일어난 야만족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는데 그 당시 테오도시우스는 아버지를 따라 복무했다. 아버

지는 뛰어난 장군이었으나 음모로 인해 죽임을 당했고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은 아들 테오도시우스는 공직을 떠나 히스파니아의 가문의 영지로 은퇴해 버렸다. 그 후 동로마제국의 발렌스가 아드리아노폴리스 전투에서 고트족에게 대 참패를 당하고 전사한 후에 서로마 황제인 그라티아누스가 히스파니아에 은거하고 있는 그를 불러들

여 발칸반도를 맡겼다. 그는 후에 서방황제로 추대된 유게니우스와의 전쟁을 치르는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종교적인 문제였는데 유게니우스는 기독교인이었으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로마의 전통종교에 대한 관용을 보임으로 지지의 기반을 넓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7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잘못된 교리를 좇는 무리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 강하게 불신한 테오도시우스는 로마화 된 고트족 병사들을 이끌고 유게니우스를 상대하려고 일어섰다. 그는 서고트족의 지도자 알라리크를 수하에 두었고 반달족 출신의 로마 군단장 스틸리코도 함께 했다. 처음 전투에서는 패했으나 다음 날 전세가 호전되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 이 승리로 인해 테오도시우스는 로마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되어 동방과 서방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승리로 인해 그가 원하던 정통신앙을 파

수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비기독교 신앙을 깨끗하게 단절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콘스탄틴 대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379년 테오도시우스가 통치하던 제국 내에 기독교인들끼리 적대관계가 대단했다. 니케아 신경을 옹호(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상 동일하다)하는 사람들과 아리우스(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상 다르다)를 좇는 무리들 간의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 교리문제 때문이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380년에 니케아 신경을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 그는 병에서 회복되자 니케아 신경을 따라야 한다는 칙령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성부성자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인정되었다. 이듬해에 열린 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주교 150명이 모여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확정했고 아리우스파는 모든 도시에서 집회를 금지 당하게 되었다. 한결을 더 나아가서 385년부터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금했고 391년부터는 로마와 이집트에서 일체의 비기독교 의식을 금지하고 공격이든 사적이든 모든 형태의 이교 숭배를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의 헌신으로 기독교의 바른 교리가 자리 잡게 되었다. 그는 생애 말년에 데살로니카에서 로마군 수비대장 한평이 주민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을 때 당시 밀라노에 있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철저히 응징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으로 주민 7천명이 학살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당시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황제의 이런 무자비한 행동을 크게 책망했다. 그리고 왕에게 성전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교회에 들이지 못하게 했다. 황제는 결국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맨 머리에 베옷을 입고 밀라노 교회로 가서 용서를 구했다. 황제는 부활절에서부터 성탄절까지 교회의 출입이 허가되지

않았고 성탄절이 되어서야 겨우 암브로시우스의 용서를 받고 성전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당시의 가장 탁월한 황제로 로마 제국을 통일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대제국의 일인자가 일개 주교의 회개의 외침을 진정성 있게 순종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에 5분 늦게 참석한 조만식 장로님을 크게 책망했고 예배 시간 내내 뒷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시오! 라는 징계를 눈물로 수용한 장로님(조만식 장로는 개인적으로는 오산학교 스승이었다)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건이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후에 주교 암브로시우스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신하들에게 관대했고 백성들을 귀히 여긴 훌륭한 황제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정통 기독교는 이런 분들이 탐과 수고를 통해 보전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 푸 / 른 / 초 / 장

이지용 목사  
(뉴욕 갯세마네 교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른 아침에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출발했지만 저녁이 되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의 인생은 무엇이었나?"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는 질문입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쇼펜하우어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그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어느덧 주변에 해가 저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다. 때마침 공원을 청소하던 사람이 그를 보고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신사 양반!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기에 아직도 이 자리를 떠날 줄 모르오? 날이 더 어둡기 전에 일어나서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소?" 그 소리를 듣고서 쇼펜하우어는 정신이 든 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나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도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

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서 자신들을 외국인이나 나그네라고 증거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크세노이'라고 하는데 이는 낯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본국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언어, 풍속, 생활 양식이 달라서 이방시 되고 끝까지 이질적으로 취급되고 멸시받는 사람을 통틀어 본문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라는 말을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데 이는 임시로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얼마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고로 이 현재라는 것은 이 현실이라는 것은 항상 임시적이라는 것

이지용.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엄격한 뜻에서 우리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와야만 나그네인 것이 아닙니다. 고향에 살아도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증거'(homologeō)라는 말은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순교도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엄숙하게 고백하듯이 진지하게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신앙인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까요? 첫 번째, 외국인이나 나그네 삶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말하지만 실상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하

며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비판하거나 무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재물을 얻고, 편안하게 가꿀 수 있는 집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소유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주신 은혜와 감사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미 베풀어주신 은혜

를 걸어갈 때 그들의 몸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출애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애굽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음식과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만 일삼았습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우황으로 멸하실 때, 자기의 나쁜 바 자신의 집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소금기둥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출3:6에서 보듯 바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책임져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감격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그 성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 25:34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곳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성입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성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곳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리라." 새 예루살렘성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찬란한 성입니다. 아름다운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장막을 벗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서 세세무궁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같이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 보낸 날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분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도다"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외국인과 나그네 삶 (히브리서 11:13-16)

자족하며 감사합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소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외국인이며 나그네입니다. 나는 여차피 빈손으로 가야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값있게 다 쓰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어린이는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손을 다 펴고 죽습니다.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저는 요즈음 "교회를 떠나는 교인을 축복하자"는 마음을 먹고 실천하려 애씁니다. 이우야 어찌든 하나님의 양으로 살기를 약속하고 떠난다면 축복해서 보내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돌아서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생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다해 돌아보며 양육하여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면 분명 하지만 내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내 자신이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믿음을 따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삶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둘째로, 외국인과 나그네 삶은 분향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분향 찾는 것을 나타낸 이라 저희가 나온 바 분향을 생각하였던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과거 지향적입니다. 땅에 집착합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의 나온 바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그곳으로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미련을 두지 않았습다. 그는 두 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다. 그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잠시 애굽 땅에 내려가서 피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다. 많은 교육을 받았습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습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난 뒤에는 과거의 육신적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다. 그는 두 번 다시 그것들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았고, 오직 앞에 있는 뜻대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분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험난하고 고달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분향을 바라보면서, 늘 밝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외국인과 나그네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 출판기념회

엄동설한에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계획" 시리즈 8권(한국어, 영어, 중국어)이 출판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귀하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오니,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일시: 2015년 2월 23일(월) 오전 11시
- 장소: 대동연회장 그랜드 볼룸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 세 · 미 · 나

- 주제: 하나님의 구원계획(다니엘, 요한계시록)
- 일시: 2015년 3월 9일(월) 오전 10:00 - 오후 4:00
- 장소: 대동연회장 그랜드 볼룸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 문의: 917-968-1024 / 917-588-2934
- 주최: 대뉴욕한인교회협의회, 대뉴욕한인목사회, 미주여성목회자협의회



라홍채 목사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자살, 더 이상 고개 돌릴 수 없는 한인사회 속까지 들어온 자살, 죽음의 영

한인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특별히 십대들의 자살은 더 이상 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옆집 또는 교회안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북가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바로 지난주에 또 몇몇 학생들과 40대 남성이 같은 주에 Caltrain에 몸을 던져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다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

한 10명중 7명이 자신의 자살을 미리 알려주고, 그중 6명은 자살까지 한다는 뜻인데, 그 뜻은 6명 모두 그들이 자살하겠다고 외친 그 외침을 주위사람들이 놓쳤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십대들 중 적어도 2.4%는 자신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의식하지 못하며 여러 죽음에 가까운 시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자해나 독약사용, 약을 많이 먹어본다든지 등등

또 다른 십대들의 자살 요인은 학교의 무리한 아카데미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나 미국의 대도시들은 오바마 정부에서 요구push하고 있는 Common Core Standard를 가르치고 있는데, Common Core STD로 인해 학생들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교 교사들이 이 학업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다시 t레 이닝을 받아야 할 정도이기도

만 볼 때 병원에서 잘못 받은 우울증약이나 정신진정제를 먹고 더 힘들어진 케이스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의사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해결책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정신진정제를 주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공부와 상담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 약물을 끊고 좋아진 케이스는 오히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세

## 자살원인 90%가 정신질환...가정불화 · 공부스트레스 탓 감정 장애 약은 일시적 효과...궁극적 치유는 영적 문제

을 접하게 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주기 위해 그 학교 근처를 갔었는데, 주위 동네 학교 분위기는 말할 수 없이 어둡고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그 자체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의 자살소동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도한다고 합니다. 자살의 주된 원인들



사들의 고심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Common Core STD는 다음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할 때 약을 사용하지만 되도록이면 교회 목사님이나 크리스천 상담을 통해서 영적 해방과 영적 치유부터 받을 때 정신과 온몸도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의학적인 약물치료를 통해서 잠깐의 감정 절제는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병을 낫게 하는 해결책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의 의학은 정신질환 약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에게도 ADHD라는 병명을 의사들이 너무 쉽게 달아주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ADHD라는 병명을 갖고 있지 않는 학생들을 카운트하는 게 더 쉬울 만큼 수많은 아이들을 ADHD 환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양심 있는 의사들이 폭로한 사실에 의하면 의학에서도 실제적으로 고칠 수 없는 정신질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것이 병 증세에 대한 명칭과 거기에 따른 약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약이라도 먹어야 안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들도 인정하는 것은 이런 약물들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고치기보다는 잠깐의 절제를 도와주는 하지만 치료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합니다.

### 자살을 통계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2012)에 의하면 자살, 자해, 자살기도(suicide attempt) 등은 젊은 층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현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 2013)에 의하면 자살이 청년들의 죽음을 초래하는 3번째 요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CDC에 의하면 자살로 인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합치면 무려 3억4천6백만 달러나 된다고 보도합니다.

의학전문인 CDC나 정신의료 전문단체들인 NIMH나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조사 자료들에 의하면 미국에서 이뤄진 자살율의 가장 큰 원인들 중 90% 이상 이다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판명이 나왔습니다. 자살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신질환이 바로 Mood Disorder이라는 감정장애 인데, 감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자살율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적게는 12배에서 높게는 20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질환의 가장 큰 요인은 결국 가정불화, 불안한 가정, 사라진 또는 잘못 혼돈되어진 엄마와 아빠의 role들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평안과 심적 안정을 찾지만 그런 것이 가정을 통해서 받지 못할 때 정신적 불안과 심적 고통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설문조사와 연구조사에 의하면 98%의 게이 레즈비언들은 아빠가 없는 가정, 엄마가 없는 게 차라리 좋았던 가정(극심한 abuse),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가정, 불화가 잦은 가정에서 자란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했습니다.

### "감정장애"란?

감정장애의 대표적인 것들은 주로 우울증과 bipolar이라는 조울증입니다. 즉,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판명된 사람들의 자살율이 평균 12배에서 20배 더 높다는 조사결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듯 우울증과 조울증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의학적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급성 증세에 대한 명칭과 거기에 따른 약을 잠깐 복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들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약은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할뿐 아니라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기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잘 알고 복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상담한 케이스들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ispcc0316@gmail.com

**Q:** 일본인 기자가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IS에 의해 잔혹하게 참수 당했고 요르단 조종사가 화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IS는 정확하게 어떤 단체이며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나성에서

**A:** IS는 Islam State(이슬람국가)의 약자로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지역을 점령한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반군 테러집단입니다. IS는 왜 무고한 외국인들을 살해하고 있는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을 한다면 그들은 알카에다처럼 미국이나 서방타도가 아니라 칼리프가 통치하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리프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어 이슬람 공동체를 통치하는 이슬람제국의 최고 통치자를 말합니다. 칼리프는 정치와 종교를 다 관장하며 일반법이 아닌 이슬람의 샤리아 법으로 통치하는 절대권력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IS는 칼리프에 자신들의 지도자인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앉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 칼리프 통치 이슬람국가 건설이 목적인 IS, 반대하는 모든 국가 민족이 적

2014년 6월 탄생한 IS의 전신은 이라크 알카에다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창설자인 아부 무사브 알자르키위가 2006년 6월 미국의 이라크 공습 때 사망한 후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그러자 이라크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일부가 결합해 이라크에 이슬람국가를 결성했습니다. 2013년 4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로 조직을 합병한 뒤 6월말 이슬람국가 건설을 공언하며 단체이름 또한 IS로 개명해 점령지역(주민 약800만)을 샤리아 법에 따라 통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이 자신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미국인과 영국인을 잔인하게 참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 지원철회의 여론을 일으켜보자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돕는 어떤 나라라도 다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인 고토겐지의 참수도 아베 일본 총리가 IS를 섬멸하는 작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발표에서 비롯됐습니다.

한국일보 이철 씨의 "무슬림들이여 분노하라"는 칼럼을 보면 "IS가 현재의 이라크 정권에 이를 갖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니파인 후세인이 멸망하고 시아파가 정권을 잡자 수니파를 대량투옥하고 학살해 이라크에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IS군 지휘관의 대부분이 후세인의 정예부대 장성 출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기 살기로 이라크군과 전투를 벌이며 생포되는 이라크 장병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미군이 철수하면서 고성능 무기를 물려줬지만 제대로 다룰 줄 모르다 정권이 부패해 IS와의 전쟁에서 번번이 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쿠르드족이 더 용감하게 IS와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점령지역에는 타 종교는 물론 타 교파 이슬람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 무슬림은 강제로 특별세를 물며 강제 개종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코란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 이교도들에게는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습니다. 민간인 학살과 외국인 납치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국가 건설에 방해가 되는 모든 존재를 적으로 간주하며 코란에 따라 참수와 십자가형, 대량 살상 등을 무자비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구 100만명이 되던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머리가 잘리고 참수당하고 핍박이 심해지자 지금은 15만명의 기독교인으로 줄었고 IS를 피해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위해 이라크를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중동의 크리스천들은 현재 대난난 중에 있으며 순교적인 신앙이 아니고는 버틸 수가 없기에 우리는 중동의 크리스천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철학교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b>2015년 1월</b>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홍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1일 ~ 13일 (함동)동인천노회 남부시찰 재직부흥회 16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b>2월</b>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일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일 ~ 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3일 ~ 25일 동충교회(홍석호목사) 27일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b>3월</b> 2일 ~ 4일 예수비전교회(박창홍목사) 5일 총신대학교 심령수련회 9일 ~ 11일 (함동)대백시찰 연합성회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7일 ~ 29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b>4월</b> 1일 ~ 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 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23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재물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일 ~ 29일 화평교회(이재우목사)	<b>5월</b>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1일 ~ 2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 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b>2014년 1월</b>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0일 ~ 12일 청파중앙교회(김향우목사)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12일 ~ 15일 우리들교회(김호경목사)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b>2월</b>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b>3월</b>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b>3월</b>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3일 신생중앙교회(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b>5월</b>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시애틀 성회(최민하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28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b>6월</b> 9일 ~ 11일 명수대교회(김강덕목사) 15일 주흥교회(최성은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b>24일 ~ 30일</b>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나성동산교회(한기형목사)	<b>7월</b>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목사)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b>8월</b>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피종진목사)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LA 평화교회(김은목사) 31일 남가주 주님의교회(한의준목사)	<b>9월</b>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말레이시아 KL중앙교회(이종일목사) 17일 양문교회(정영호목사) (극동방송 소망의기도 치유집회) 오병이어교회(김형재목사) 24일 블레스 샬터교회(고영수목사) 25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재물 28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b>10월</b> 15일 ~ 7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승현교회(김학기목사)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b>11월</b>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6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마라톤 블레스 집회)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20일 ~ 22일 수정교회(조일래목사) 24일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역수원 강의 30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b>12월</b> 1일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1일 GST 미션리서치(캄보디아)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의밤(GST)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	--	---	--	--	---	---	---	--	--	---	---	--	---	--	---	--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카자흐스탄의 둔간(DUNGAN)



둔간족은 중국 북서쪽의 칸수성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랍, 페르시아, 그리고 투르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만 러시아인들은 그들을 "둔간"이라는 호칭으로 부른다.

삶의 모습 둔간인들은 주로 쌀농사를 짓거나 사탕무와 같은 야채를 재배하는 농부들이며...

둔간인들은 부유하므로 풍부한 육류와 야채를 즐기고 자기들 농장에 대해 자부심이 강하다.

개의 집단농장이 있고 수천명이 산다. 각 마을에는 농장 운영을 위한 자체 운영조직이 있다.

둔간인들은 동족결혼을 선호한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둔간인들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둔간인들보다 더욱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둔간인들은 손님들을 환대하며 그들의 고유문화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의식과 연회를 치른다.

신앙

카자흐스탄의 둔간인들은 키르키스탄의 둔간인들보다 이슬람에 대해 더욱 헌신적이며, 100% "하나피파"...

운영되는 이슬람사원이 있으며 성직자들은 신도들의 재정지원과 재산세로부터 수입을 얻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카자흐스탄은 문화와 종교가 다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의 복음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대법, 엘라베마주 동성결혼 허용

미국 엘라베마 주에서도 9일부터 동성결혼이 허용됐다.



보수 성향이 강한 엘라베마 주에서도 동성 간 결혼이 가능해짐으로써 미국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 그리고 워싱턴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타운즈 교수 '영향력 있는 10개 교회' 출간

100년 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성장한 교회는 어디일까.



우선 오순절 교회와 은사주의 운동의 발전이다. 현재 이 계열에 속한 기독교인은 전 세계 크리스천 4명 중 1명에 달한다.

모인 크리스천들은 이 교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오순절 성령운동을 이어갔다.

둘째는 중국 가정교회의 성장이다. 1958년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과 죽의 장막으로 베일에 쌓여있던 중국은 외부의 시각과 달리 성장을 거듭했다.

셋째는 다문화, 다민족 교회의 성장이다. 2차 대전 이후 국경이 무너지면서 교회는 '인터스테이트'나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었다.

넷째는 역사상 가장 많은 성도가 등록한 순복음교회이다. 2007년 당시 76만명이 등록 성도였으며 교인들은 3만5000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집과 세탁소, 음식점 등을 가리지 않고 모여 기도했다.

다섯째는 남침례교회의 성장이다. 남침례회는 1900년 미국 남동부에서 시작된 작은 교단이었으나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이 됐다.

여섯째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교회에 성경 교육의 성장이 있었다. C.I. 스코필드는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출간, 30년간 2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일곱째는 구도자를 위한 교회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시카고 윌로우크릭커뮤니티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이른바 '구도자'를 위해 현대적 음악과 드라마 등을 사용했다.

여덟 번째 트렌드는 경배와 찬양 음악의 전 세계적 확산이다. 호주 힐송교회와 대표적으로 찬양 인도자인 달린 채와 함께 찬양하며 눈물 흘린 전 세계 크리스천들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아홉 번째는 교회가 복음전도를 위해 광고와 마케팅 기법, 미디어 전도를 전적으로 삼았다.

마지막은 교회 문화가 변해왔다. 기수는 갈보리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로 그는 달린 채의 젊은 층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다.

오바마, "진정한 신앙유지위해 겸손해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앙이 약에 의해 활용되지 않고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겸손, 정교분리, 골든룰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슬람국가(IS)의 폭력성을 언급한 뒤 "신앙이 비뚤어지고 왜곡된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올바른 신앙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종교가 약에 의해 잘못 사용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며 종교가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겸손, 정교분리, 골든 룰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가 만약 겸손하다면, 어떤 상황이 닥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골든 룰'이란 "내가 대접하고 싶은 만큼 다른 이를 대접한다"는 것으로, 오바마는 "이는 모든 신앙인과 구도자들을 묶는 한 가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IS 억류 미국 여성인질 사망 파장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여성 인질 케일라 진 몰러(26)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자 미국 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즐기며 강경 대응을 주문해 온 공화당의 지상군 투입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버

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성명을 통해 "미국인을 대신해 몰러의 유족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IS가 앞서 지난 6일 몰러가 금요일에 중 1시간여에 걸친 요르단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한 지 나흘만에 몰러의 죽음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에리조나 주 프레스콧 출신인 몰러는 시리아 난민을 돕고자 2012년 '서포트 투 라이프'(Support to Life)라는 터키 인도주의 구호단체에 가입해 자원봉사를 해오다 2013년 8월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서 IS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몰러의 희생은 지난해 8월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 9월 또 다른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 11월 미국인 자원봉사자 피터 캐시 참수의 충격과 악몽을 되살리면서 IS 대처 강경 여론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IS를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의 승인을 미 의회에 요청하는 것과 맞물려 의회 내 공방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몰러 사망을 계기로 미 의회를 완전히 장악한 공화당이 지상군 파병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여 '지상군 파병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존 매케인(에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강경파는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IS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상군 투입은 IS 격퇴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해 왔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에 위치한 타코마삼일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 1) 자격: 1. 정규 신학대학 Th. M 혹은 M. Div 학위 이상 소지한 분 2. 목사안수후 5년 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3. 미국 시민권/영주권 소지자 4. 2중언어 (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2) 제출서류: 1. 이력서 2. 최종학력 증명서 와 목사안수 증명서 3. 자기소개서 (가족소개 및 사진포함) 4. 최근 음성설교 2편 (해당 CD/DVD) 5. 목회비전 및 신앙고백서
3) 제출처: 1. 우편: 삼일교회 청빙위원회 Tacoma Trinity Church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2. E-Mail: tyyounglee@gmail.com
4) 제출마감: 2015년 2월28일 까지
5) 기타사항: 접수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임된분에만해서만 개별통지 드립니다. 전화문의: 이영환 청빙위원장 (360-265-4961)

타코마 삼일교회 TACOMA TRINITY CHURCH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구독료 (Subscription Fee) and 금액 (Amount). Rows include 1년 (1 year) for US, Canada, and Korea/SE Asia, and 6 months for Europe, Japan, and Africa.

Subscription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checkboxes for subscription type and language preference.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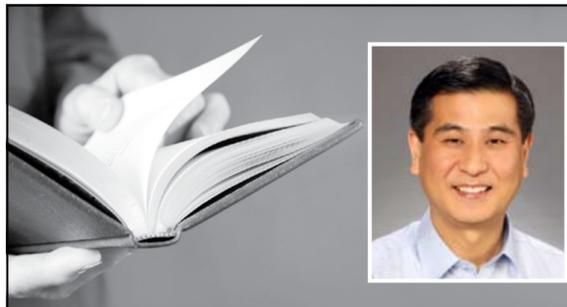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6)

##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교회 - 사도와 성경 (4)

21세기 리더십은 '소통'이 강조되고 있다. 자신의 뜻을 상대에게 전하기 전에 반드시 '관계형성'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유한다. 먼저 마음이 통해야 말과 글이 들린다. 사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어떤 메시지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설교를 포함한 복음전파의 과정에서도 '소통'의 중요성은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복음은 사람을 통해 전달된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성경의 영감을 받은 저자의 손에 의해 기록된 글을 접한다.

사도행전(使徒行傳, Acts of the Apostles)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사도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와 함께 생활을 한 적이 없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던 기간에도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는 사도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사도 바울'이라고 부른다. 그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세우신 '특별한 사도'였다.

이다. 그는 주로 서신을 시작하는 '인사말' 부분에 자신의 신분이 예수께서 세우신 사도임을 분명히 한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모두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

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유일성 때문이다. 그는 복음을 오로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기초하며, 모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힘써 강조하였다.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복음은 하나이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의 사명은 '십자가 복음'을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다.

지만 그들과 동일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을 '특별한 사도'로 기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을 주려하였다.

바울은 유대교에 속하여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그가 회심하였다. 예수께서 친히 바울을 만나 이후에 놀라운 생김 변화이다. 바울은 이 사건을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자신을 보이신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고전15:1-11). 그리고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은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 사도 바울 - 논쟁의 열매

바울이 사도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었다.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법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사도의 의미와 역할을 보다 근원적으로 설명하려 하였지만,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을 선포하여 바울을 배척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이나 명성을 해칠 것을 우려하기보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확실히 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했다. 또한 적대자들의 비난에 의하여 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내용을 목회적인 차원에서 차분히 설명했다. (16면으로 계속)

## 바울은 복음의 진실성과 유일성 확실히 하려 자신의 사도권 변증 초대교회 교인들의 복음전달자 정체성 확인은 이 시대에도 필요

질문: 그렇다면 나는 성경을 기록한 자들의 정체성을 하고 그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들은 전도사역과 함께 초대교회가 서서히 확장되어나갔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부분은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활동이, 뒷부분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사역을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는 13개의 바울 서신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의 수를 모두 합쳐도 바울보다 적다. 초대교회를 포함한 모든 주도의 교회에 끼친 바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 자신의 사도직을 의도적으로 드러냈다는 것

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며 사역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하고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한 분명한 이유는 따로 있었

- 1) 교회역사를 보면...
- 바울 - 특별한 사도

### 그래서 그랬던 거야?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3)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두 지파 반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지금 사막의 대부분은 과거에 바다이거나 평원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한때는 번창했던 도시들이 많았다. 이유는 단 하나, 비가 내리지 않아 사막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사막은 하층(땅 밑)구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막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을까? 아니다. 사막에도 비가 오긴 온다. 지구상에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한다. 사막에도 비가 오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은 요르단에 있는 와디 럼이

이 그려져 있다. 당시에는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고 그래서 강력한 바위가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구가 사막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사막이 점점 푸르른 대초원으로 바뀌어 가는 곳도 많다. 사막화 현상으로 1년에 몽골만한 넓이가 사막으로 바뀌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그보다 더 넓은 지역이 사막에서 초원으로 바뀌고 있다. 성경에도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온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 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

라”(사51:3).

“그 때에...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자와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사35:6, 43:19-20).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시107:33). “광야와 매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사35:1).

다른 이유에서이기도 하지만 비옥한 땅이 사막으로 변한 곳도 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심만의 양떼를 데리고 지금 이 요르단 왕의 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고 있었다. 에돔 지역을 지나게 되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길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양들이 농작물을 훼손시키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만일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배상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에돔 사람들은 거절했

다(민20:14-21).

지금 그 지역은 황량한 사막이다. 농사를 질 만한 땅이 거의 없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지역에 비옥한 곳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르단 동쪽에 정착했다(민32장).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을 유업으로 줄 것을 요청했다. 처음에 모세는 거절했으나 결국은 허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해발 800미터가 넘는 고원지역인데다 황량하기 짝이 없는 사막이다. 그런데 왜 젓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마다하고 그곳에 머물렀다고 했던 것일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왜 계속 광야에서 살겠다고 한 것이었을까?

당시에 그 지역은 사막지대가 아니었다고 한다. 구약성경시대에는 요르단 동편도 수풀이 우거진 산림지대였다고 한다(민32:4). 그러기 때문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곳을 유업으로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면 대개는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려 내려갔다. 이집트에는 사시사철 흐르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으로 사해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고원지대이다. 그리고 거기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당시에는 그곳이 사막이 아니고 평원이 대었던 것이다. 하지만 잦은 전쟁과 개간, 그리고 방목 등으로 황폐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 미디안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즈르엘 평야까지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 해마다 올라왔던 사실을 설명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 모두 사막지역이었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들은 부득불 곡식을 얻기 위해 그 먼 이즈르엘 평야까지 올라와야만 했다고 영뚱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메일: jinhlee1004@yahoo.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h3>뉴욕새벽별장교회</h3> <p>담임목사: 정기태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com</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원 Tel: (718)461-2810(Fax: 718)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생명장교회</h3> <p>담임목사: 허윤준 Tel: (718)358-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p>	<h3>뉴욕순복음안다독교회</h3> <p>담임목사: 이만호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tfch.com</p>	<h3>뉴욕초대교회</h3> <p>담임목사: 김승희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ochurch.org</p>	<h3>뉴욕목양장교회</h3> <p>담임목사: 송병기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p>	<h3>뉴욕필라델비아장교회</h3> <p>담임목사: 김해천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Ave. Port Washington, NY 11050</p>
<h3>롱아일랜드성결교회</h3> <p>담임목사: 김석형 Tel: (516)333-7757, 동: (516)746-4084 18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p>	<h3>선한목자교회</h3> <p>담임목사: 황영진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twchurch.org</p>	<h3>에벤에셀선교회</h3> <p>담임목사: 최창섭 Tel: (718)373-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j.us/</p>	<h3>예사랑교회</h3> <p>담임목사: 손한권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p>	<h3>좋은목자교회</h3> <p>담임목사: 김신영 Tel: (516)584-4088, www.jounokmchchurch.org 1 West Hill Court Huntington Station, NY 11746</p>	<h3>켄즈장교회</h3> <p>담임목사: 김성국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jcc.org</p>	<h3>퀸즈한인교회</h3> <p>담임목사: 이규섭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qcnj.org</p>
<h3>한마음침례교회</h3> <p>담임목사: 박마이클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rak@gmail.com</p>	<h2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h3>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3> <p>www.pcovp.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3>브라질 서술교회</h3> <p>담임목사: 하경남 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n Piza, 281 Cambuci S. Paulo Csp 01528-010</p>	<h3>브라질 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봉현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3>브라질 새소망교회</h3> <p>담임목사: 박재호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p>	<h3>아르헨티나 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최광연 Tel: (54)114-631-1788 AV. CARAI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3>칠레 한인연합교회</h3> <p>담임목사: 왕익상 Tel &amp;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3>토론토 가든교회</h3> <p>담임목사: 정권일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3>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h3> <p>선교사: 임한근 목사 Tel: (595)211-574-985 E-mail: hanrk@hanrk.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p>	<h3>하와이 행복교회</h3> <p>담임목사: 이남수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3>호놀룰루한인장교회</h3> <p>담임목사: 조일구 Tel: (808)8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자녀를 잃거나 어려움에 처한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런 질문들을 해보았을 것이다.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면 왜 이런 고통과 죽음이 있는가? 보통 사람들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보다 더 유명한 전도사 찰스 템플턴 목사(Charles Templeton, 1914-2001)는 고통의 문제에 답을 찾지 못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진화론의 영향 아래 있던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배운 후에 그는 하나님을 떠났고, 심지어 그의 친구인 그레이엄 목사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레이엄 목사가 성경의 무오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템플턴 목사는 자서전 “신 이어 잘 있거라(Farewell to God)”를 발표하고 기독교 신앙의 변절자가 되고 말았다. 그는, ‘죄가 모든 범죄들과 가난, 고난, 사악함의 원인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약육강식의 이 세상에서 사람

## 창조과학 칼럼 (222)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다 그의 손에 (31) 고통의 문제

신도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탐불과 영경귀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탐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

비타민 B와 K를 만들어 공급한다. 그러나 이 대장균이 혈액 속에 들어갈 때 어떤 큰일이다. 좋은 것은 타락된 세상에서는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각종 기생충들도 원래는 좋은 목적을 가졌던 관계

여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형벌(17, 19)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형벌은 그들이 죽음을 맞는 것이었다(19).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과학자들은 관찰되는 것만을 취급할 수 있으므로 직접 생명과 죽음을 다룰 수 없다. 죽은 사람과 살아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하기도 쉽지 않지만 생명이란 것과 사망이란 것은 관찰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생명과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아무 것도 연구할 수 없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주(Lord)께 있고(시36:9) 창조자 예수님이 생명(요14:6)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반역 사건은 하나님처럼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인 사람(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Creator Lord God)을 거부해 버린 사건인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라 사탄의 말과 다르게 아담은 죽었다. 사탄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적적으로 사실이었다. 선악과를 따먹은 날 아담은 하나님께 버림을

##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 딱사랑하시는 하나님

“무릇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찌니라”(출25:9).

하나님은 자녀이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만나주시려 하십니다. 그 노력이 기가 막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차근차근 마련하십니다. 환경은 다르나 세상적인 이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바꾸시는 작업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먼저 모세(지도자)를 택하시어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긴밀히 신뢰하는 관계를 다져 놓으십니다. 모세를 다루시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모델입니다. 먼저 훈련하신 모세와 더불어 아직도 세상에 붙어있는 못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백성답게 돌리시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소의 모형을 자세히도 알려주십니다. 은혜에 조금 눈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하신대로 헌물을 드리고 또 모형을 정해 주신대로 만날 자를 위해 성소를 지으라 하십니다.

매사에 우리에게로 수준을 낮추시며, 우리가 자원하여 주께서 기뻐하실 것을 따라 우리 손으로 지으신 곳에 임하시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모양 그대로는 도무지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몸체들은 다 깨끗이 깎아 만든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모든 지지 분한 것들을 완전히 깎아 일률적으로 반듯해진 속나무만이 쓰임 받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모든 것이 완전히 깎이는 것이 주의 전에 쓰임 받을 주의 일꾼의 첫 단계입니다. 깎이지 않는 자는 허드레 팔각 외에 주님의 신령과 진정의 사역에는 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깎은 조각목 위에 정금으로 온 사방을 둘러 쌓인 것이 주님께서 사용하실 성소가 됩니다. 성소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은 모든 것이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깎여진 우리의 산재물위에 예수님으로 둘러싸여야만 주께서 맘껏 사용하십니다. 거기다 모든 사용되는 성물은 정금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사역(복음) 빛과 소금되시어 세상을 밝히시는 사역을 하시도록 겸손히 받쳐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증거 속에 넣은 율법의 요구를 정금의 속죄소의 심자가의 은혜가 덮입니다. 심자의 완전한 사랑은 율법의 요구의 완성입니다. 그곳에 천군천사의 찬양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기뻐게 사귀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으로 황송스레 초청하십니다.

주님! 어찌 제 갈 길로 달아나기에 힘쓰는 악한 우리들을 이렇도록 자상하게 사랑하시는지요. 이런 악하고 못난 것들을 만나주시려고 자르시고 깎으시고 알맞게 만드셔서 기뻐코 만나서 거룩에 참여토록 열심이신 하나님! 당신의 그 열정적인 사랑에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아니 당연히, 너무나 당당히 잘난 체 매일 당신을 배반만 합니다. 이런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기에 지치시지도 않으시는 주님!

나 이제 이 세상엔 쉼 곳 없어 완전히 파산된 지친 모습으로 당신께 열매없이 돌아옵니다. 주님의 피로 나의 모든 구석구석을 깨끗케 씻어 주소서! 당신 안에 그저 쉬고 싶습니다. 이런 저를 꾸짖지도, 더럽다 마다하시지도 않고 꼭 안아주시는 당신의 품에 나를 던지시어. 씻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 템플턴 목사·C. S. 루이스 등 진화론적 사고에서 못 벗어나 그리스도의 혜택은 성경이 사실임을 믿을 때만 누릴 수 있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변태적이고 가혹한 존재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평신도이면서도 많은 목사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류 작가이자 교수였던 C. S. 루이스도 진화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크리스천들에게 유명한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정한 답을 주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유인원을 사람이 되게 했을 것이라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첫 사람 이전에 있었던 죽음의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사실이 아닌 진화 역사 안에서 진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의 마음속에 이 진화만 없었더라면 그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 완전한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진화론은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창조에서 시작된 역사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맨 처음에 가장 완벽하였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



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3:17-19) 하셨습니다. 이 저주 이후로 창조물들 중 어떤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완전하지 않게 되었다. 또, 창조물들은 무질서의 법칙인 열역학 제 2법칙에 따라 계속 무질서해져 갔다. 고통과 죽음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지금의 해로운 박테리아(세균)와 기생충들마저도 아담의 반역 이전에 아담이 가장 완벽하게 살아 가는데 필요한 것이었다. 대장균은 사람의 대장 속에 살면서 사람에게

시스템)가 파괴된 상태에서는 서로에게 혹은 다른 편에 고통과 죽음을 주게 된 것이다. 아담의 반역과 하나님의 저주는 고통과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정점은 사 람에게 있다. 성경은 사람이 타락하는 데 동원된 뱀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더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창3:14, 17). 그러나 반역에 대한 가장 무서운 형벌은 주범인 사람에게 주어졌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고(16)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하

말아 영적으로 죽었고, 그의 육체도 930년 동안 이 땅을 갈며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갔다. 바벨탑 사건 후에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한자들을 만들었다: 藥(약, medicine); 券(힘살로, labor); 塋(무덤, tomb). 영화롭고 존귀하던 하나님의 형상이 반역하여 저주를 받아 땅 흘러 일하다가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성경은 두 아담의 죽음에 관한 책이다. 두 번째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슬픔을 맛보고(사53:3), 찢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셨고(사53:5), 저주의 가시관을 쓰셨고(막15:17),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셨고(눅22:44), 성경의 예언대로, 아담이 죽어 되돌아갔던 그 땅 속에 묻히신 것이다(시22:15; 눅23:53).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어 첫 번째 아담의 심판 자리에 서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혜택은 첫 번째 아담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진화론에서 벗어나 성경 기록이 사실임을 믿을 때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은 성경의 아담이 사실일 때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메일: mailforwscchoi@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p><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lafcus@yahoo.com / www.lafcus.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20 주일3부예배: 오전 9:40 주일4부예배: 오전 11:10 주일5부예배: 오전 12:30 주일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213)388-7101, Fax: 323-227-0718 www.younghan.com</p>	<p><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AIL: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213)388-6564,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주말 학교: 오전 6:30 EM: 대방학: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 www.nachimban.org</p>	<p><b>남가주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EM): 오후 1:30 주말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p>	
<p><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p><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철은이예배: 오후 11:20 영양예배(월-수, 목, 금): 오전 11:20 영양예배(목-토):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p>	<p><b>등문교회</b>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www.dunghoon.com</p>	<p><b>동양선교회</b>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찬양예배: 오전 9:30 3부 말씀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p>	<p><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2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b>드림교회</b>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519 S. Western Ave., 9079 www.mjygc.org</p>	<p><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1부: 오전 8:30 (영양)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4부: 오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www.mjpac.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p>	<p><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1부: 오전 7:15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주일예배4부: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 오전 1:00 토요영양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수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p><b>남가주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6:30(토) 금, 수, 목, 금: 오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8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p><b>윌셔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말 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토요영양예배: 3:05월-토 24시 온 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p><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w.com / e-mail: pastor@cornestonew.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5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찬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 다시 고개드는 유령학교 비자장사... 그 중심에 일부 한인신학교 있다

최근 유학생들의 신분문제를 악용해 학교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감지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타운을 비롯한 거주지역의 영어학교를 비롯해 ESL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거주교육국 실사에서 탈락한 학교들은 더 이상 ESL강의를 할 수 없다. 이들 학교는 폐교되거나 ESL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유학생들은 실사에서 통과된 ESL교육기관으로 전학을 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선택한 것은 ESL교육하는 곳이 아닌 일부 한인신학교다.

타운내 모 한인신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스티브박(가명) 씨는 "더 이상 영어학교를 다닐 수 없어 신학교로 오게 됐다. 그러나 나 혼자 수업을 받을 때도 많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몇 번 참석하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학사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 한인신학교들에 재학 중인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여건에 놓여있다. 문제는 학교가 학생들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주고 있다는데 있다. 수업 등록을 했지만 몇 번 출석하지 않고도 이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자칫 자질이 되지 않은 사역자를



2009년 폐교된 캘리포니아 유니온대학

## 캘리포니아유니온신학교와 유사 사태 벌어질 우려

양산할 수 있다는 것.

지난 2009년 폐교된 캘리포니아 유니온신학교 사례처럼 이들 학교들의 행보는 비자장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송정명 총장은 "정상적인 학사행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학교가 운영이 될 때의 결과는 자질이 의심스러운 목회자가 양산되는 것"이라며 "기독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결국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 질 것이며, 안티들의 공격이 더 거세게 될 여지를 주게 될 것"이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주장신대학교 총장 이상명 박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결국 피해는 한인사회에게 돌아올 것

로 꼬집었다.

이 박사는 "학교가 폐교가 될 경우 학생들은 해당학교의 가이드에 맞춰 전학을 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작정 에이전트 말에 따르기 보다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 학생 스스로 검토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학을 해야 하는 학교가 신학교일 경우 적어도 ATSNABHE 등 인준기관에 정회원후보로 지정된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오는 2017년까지 모든 학교가 해당교육기관에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폐교조치 당하게 된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의 신분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상명 박사는 "결국 유학생 본인이 유학을 하게 된 본질을 지키느냐가 관건"이라 말하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게 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한인사회의 크레딧에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입학 관련 담당 상담가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아주사피사피대학교 부총장 박성민 박사는 "신학교 운영자는 왜 신학교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학교운영이 어렵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나타나

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는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소명을 받고 입학을 한 자와 신학공부에 대한 관심을 가진 채 입학한 후 학업을 진행하면서 소명이 생기게 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은 학생이 졸업 후 사역자의 길로 가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성민 박사는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함으로 받게 되는 기쁨이다. 하지만 소명이 없이 목회자가 된다면 결국 자신의 삶이 비참함 속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한인 커뮤니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월드미션대학교 한인기독교상담소(KACC) 나성영(왼쪽) 신하 와이넷(YNOT) 재단 등 한인 단체들과 손잡고 무료 정신건강 세미나를 제공한다

## LA카운티 정신건강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 월드미션대, 와이넷 각각 10만 달러씩 수여

LA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LA카운티 정신건강국(DMH)이 월드미션대학교 한인기독교상담소(KACC) 나성영 대표와 산하 와이넷(YNOT) 재단 등 한인 단체들과 손잡고 무료 정신건강 세미나를 제공한다.

LA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는 카운티 산하 18개 단체에게 각각 1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되는데 한인 단체로는 월드미션대학교 한인기독교상담소와 와이넷재단이 선정됐다.

이를 위해 월드미션대학교(WNU 총장 송정명 박사)와 와이넷 재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료 정신건강 세미나 개최에 대해 발표했다.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교 기독교상담학과 김화자 교수는 "LA카운티 정부에서 정신건강이 심각한 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치료보다 예방을 할 때 비용이 줄기에 정신건강을 다루는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KACC에서는 LA카운티 내 소규모 교회와 양로병원 등 정신건강을 다룰 전문가를 초빙할 수 없는 곳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원할 경우 무료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 6일 오전 11시 워싱턴로보존센터에서 첫 번째 정신건강 클리닉을 실시했으며, 1년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세미나를 실시하게 된다.

김 교수는 "한인들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많이 받지 않는다.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증세가 심각해졌을 때 환자분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분들을 병원에 가야 하지만 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극심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언어문제가 있다"며, "KACC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만큼 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LA카운티에 거주하는 분들은 부담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와이넷재단의 스티븐라임 사무국장은 "지난달 15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이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이 잘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넷재단의 정루미 심리치료 전문가는 "특별히 와이넷재단에서 제공되는 앵거디톡스 프로그램은 4주간 열리는 프로그램으로 가정 폭력이나 분노 등 각종 분노에 대한 예방교육이다. 앵거디톡스 프로그램은 16명 정원으로 열리는 것이며, 30명 이상 참여하는 세미나 역시 한달에 1, 2회 열게 된다"고 말했다.

와이넷재단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세미나 등 서비스프로그램에는 스티븐라임 국장, 정루미, 자스민서 심리치료전문가, 신예진, 카미조, 미舍利, 이주연 선생이 참여하게 된다.

KACC의 연락처는 (213)738-6930, 와이넷재단의 연락처는 정루미 선생 (323)488-5800-(Ext.195)이다.

(박준호 기자)

(박준호 기자)



미주장신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장신대학교 총장 특별강연에서 김명용 총장이 강연하고 있다

## "온신학-21세기 통전적 신학을 향해" 미주장신대, 김명용 한국장신대 총장 특강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가 주최한 한국장신대학교 총장 김명용 박사 초청 특별강연이 '온신학(Holistic Theology)-21세기의 통전적 신학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4일 오전 11시 본교 강당에서 열렸다.

김명용 박사는 "온신학은 한국장신대의 신학이자 미주장신대의 신학이다. 온신학은 세계를 구원하는 신학이며 교회를 참으로 살리는 신학"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한국교회에서 근본주의의 영향은 지대하다. 근본주의는 성경 안에 있는 문화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세계관이 성서시대에 묶여버려 현대인들과의 시각이 2-3천년 벌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온신학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간 후 130년 동안 한국에서 녹아지고 부딪혀서 나온 신학"이라 말하고 "온신학은 7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삼위일체, 둘째 하나님의 주권, 셋째 온전한 복음, 넷째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다섯째 대화적, 여섯째 기도, 일곱째 사랑의 교제"라고 소개했다.

김 박사는 "교회가 문제가 많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권징이 회복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회복이다. 마귀를 묶어버리는 건 결국 사랑 외엔 아무것도 없다. 온신학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새장로교회에서 열린 2015폴리목회자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믿고 사역하라" 2015폴리목회자세미나, 강사 박진구 목사

폴리신학교 한인총동문회(회장 박진구 목사)가 주최하는 2015 폴리목회자세미나가 '선교와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라는 주제로 2일 오전 11시 새장로교회(담임 원영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신동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박진구 목

사(전주안디옥교회)는 '강통교회,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박 목사는 "전주는 6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과거 조선시대는 평양, 한양, 전주 이 세 도시가 나라의 중심을 이루었는데 특히 전주는 전라도 감찰사가 있던 곳이었다. 현재

는 경제발전상황이 경기도의 일산과 문산보다도 더딘 상태이며 전통에 묶여있는 도시"라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강통교회로 잘 알려진 전주안디옥교회에 이동휘 목사에 이어 2005년부터 현재까지 2대 담임목사로 10년째 사역을 하면서 "구약성경의 요셉이 겪은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계획안에 있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사역하라"고 전했다.

또한 "전주 안디옥교회는 목회자가 술선수범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모든 성도도 그것을 따르며 선교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소개하며, "전체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에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면 성취된다. 따라서 영적전쟁이 만연한 이민사회에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받는 폴리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영어부 사역 담당 목회자 청빙

### 1. 사역대상

대학생 및 직장인 (80-90인 출석) 이 주요 사역 대상입니다. 중고등부 (70-80인 출석)

### 2. 자격

- 1) 미국 정규 신학교 졸업자 (M. Div 소유자)
- 2) 목사 안수 받은 자 (5년 이상 목회 경험자 선호)
- 3) 1.5 내지 2 세대 영어에 능통한 자

### 3. 제출 서류

- 1) 자필 이력서 (가족 사항 포함)
- 2) 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3) 안수증
- 4) 2회분 설교 tapes 또는 discs
- 5) 간증문 및 목회 vision 진술서(나는 어떤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왔는가)
- 6) 추천서 2통 (목회자와 일반 성도로 부터 각각 1통씩)

### 4. 제출 기간 3월 31일 까지

### 5. 제출처

청빙위원 Samuel Lee: lee.1371@gmail.com / 당회장 이근상 목사 lee@mykoreanchurch.org Tel. 614/ 764-8960 ext.101 / Mailing address: 2825 Snouffer Rd. Columbus, Ohio 43235

### 6.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습니다. 면담 후보로 선출된 분은 개별 통지합니다.

# 콜럼버스 한인교회

## 씨존 '목회와 선교 위한 컴퓨터' 강좌

씨존(대표 문석진 목사)의 제 33기 '목회와 선교를 위한 컴퓨터 강좌'가 2월 12일 개강했다.

이번 강의 주제는 '크리스천의 선교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이며 수강 자격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활용에 미숙한 크리스천으로 선착순 12명.

강의는 3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45분까지 총 7회에 걸쳐 CBSN(뉴욕기독교방송) 회의실에서 열린다.(163-07 Depot Rd. #B-2 Flushing)

강의는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 시폰, LG폰, 모토로라)으로 사용하

며 아이폰 소지자는 청강할 수 있다. 주요강의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찍기, 보내기(텍스트, 카톡), 지도로 주소 찾기, 이메일 사용하기, 앱 다운로드받기, 성경보기, 신문/TV/라디오/유튜브 보기 등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등록비는 20달러. 자세한 문의는 전화 (347)538-1587이나 이메일 new-yorktop@gmail.com로 하면 된다.



필라 은퇴목회자 부부 섬김잔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필라 지역 은퇴 목회자부부 위로 섬김 잔치

지난 1월 25일 오후 6시 필라목회자 사회(회장 박태문 목사)가 주최한 제 11회 필라델피아지역 은퇴 목회자 및 목회자사모 위로 섬김 잔치가 열렸다. 필라안디옥교회(담

임 호성기 목사) 본당에서 열린 잔치는 행사에 예배와 공연,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동부교계 게시판



## 퀸즈장로교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가 2월 23일(월)부터 시작된다. 시간은 오전 5시45분. 사순절 기도회는 주일 포함 부활절 당일 4월 5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718)886-4040

## “하나님의 구원계획” 출판기념회

라훤채 목사와 김선옥 목사(뉴욕제자교회)의 저서 “하나님의 구원계획” 시리즈 8권(한, 영, 중국어) 출판기념회가 오는 23일(월) 오전 11시 플라자 대동연회장 불룸에서 열린다. 한편 라훤채 목사는 3월 9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나님의 구원계획”(다니엘,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갖는다. 장소는 대동연회장 그랜드 불룸.

▲문의: (917)986-1024, 588-2934

## 미주기독교방송 전속합창단 모집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 윤세웅 목사) 전속합창단을 모집한다. 음악감독은 박동명 씨로 모집분야는 25-55세 남녀 세례교인 00명. 청소년오케스트라 3-9학년(80명), 어린이합창단 2-8학년(60명). 성악 및 기악전공자를 우대하며 오디션이 있다. 10월에 미주성기대합창제와 연례 정기연주회, 유명 연주자와의 공개 레슨실황 생방송, CD, DVD 제작, 미주와 한국 세계각국 초청 순회공연, 유스 우수단원에게는 봉사상과 크레딧도 제공된다. 한편 KCBN은 방송사역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메일: kcbnnewyork@gmail.com

▲문의: (917)545-4396, (516)662-9322, (718)463-1700, 1701



뉴욕전도협의회 제 11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신임회장 오태환 목사.

## 뉴욕전도협의회 신임회장에 오태환 목사

### 제11회 정기총회, 결산 총 5만3천 달러 결산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허윤준 목사) 제 11회 정기총회가 지난 2일 오전 11시 뉴욕효성교회(담임 김영환 목사)에서 열려 신임 회장에 오태환 목사를 선출했다. 오태환 목사는 “과도기에 있는 전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여성 목회자들도 적극 영입해 협력 전도의 모범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전 회장 허윤준 목사는 “1년 동안 전도협의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많았다”면서 “좋은 임원들이 선출돼 전도협의회를 열성적으로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도협의회는 통상 전 회기 부회장이 회장직을 맡아왔으나, 올해는 회장을 맡을 순서였던 이종명 목사가 뉴욕교협 부회장을 섬기고 있는 관계로 전임회장 중에 신임회장을

선출하기로 했고 이에 오태환 목사가 회원들의 만장일치 의견합일로 회장을 맡게 됐다.

회계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뉴 뉴욕전도협의회 총수입은 53,712달러이며 총지출은 53,595달러. 이중 지난해 회계에 처음 시작한 연합전도지 제작 사업에는 15,150달러의 수입과 지출이 있었다.

회무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이종명 목사가 ‘사명자’(막16:15-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종명 목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핍박받으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있다”면서, “전도협의회는 복음전파는 절대로 멈추서는 안 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협력하는 단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뉴욕전도협의회)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의 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역자가 돼라”

### 동부개혁장신 제9회 총동문회의 밤 성료

동부개혁장신총동문회의(회장 장영준 목사) 총동문회(회장 허윤준 목사)가 지난 9일 저녁 7시 제 9회 총동문회의 밤을 열었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친교실에서 열린 동문의 밤에서 허윤준 회장은 “동부개혁장신교회가 지난 28년 동안 42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다”며,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삶과 목회를 가르쳐주신 학장 장영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1부 예배는 허윤준 목사 인도로 기도 최미하 전도사(서기), 성경봉독 이경민 전도사(부회장), 찬양 동부개혁장신 찬양대, 설교 장영준 학장, 헌금특송 이재환 학우, 봉헌기도 김지희 목사, 축사 김성국 목사, 감사패 증정(김지희 전임회장), 신학교 소개 김해천 총무처장, 특별연주 신동기 학우, 문물선교사 및 미자립

교회 후원금 전달, 광고 정기태 목사(총무), 축도 김해천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영준 목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고전11:1)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사도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라며,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면 좋겠는가” 반문하고 “동부개혁 졸업생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닮은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김성국 목사는 자신은 동부개혁 출신은 아니지만 “동부개혁신학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동부개혁신학교가 없다면 뉴욕교계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졸업생들이 모두 사역을 잘 하셔서 제 자신이 도전을 많이 받았다. 열심히 기도하며 함께 동역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후원금을 받은 동문은 임태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에서 열린 고 이성은 자매 2주년 추모예배에서 이만호 목사가 축도하고 있다.

## 고 이성은 자매 2주년 추모예배

###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 이만호 목사의 딸 성은자매의 2주년 추모예배가 지난 8일 본 교회에서 드려졌다. 고 이성은 자매의 죽음으로 뉴욕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안락사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교회측은 “고 이성은 자매가 존엄사(안락사)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마음대로 인간의 생명을 결정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되

고 있음에 세상에 알려 효와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했고 수많은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크게 쓰임받고 2013년 2월 10일 그 좋은 천국에 간 고 이성은(SungEun Grace Lee)양의 제 2회 추모예배를 드렸다”고 전했다.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는 성은자매의 신앙을 기려 성은선교장학재단(Grace Mission Foundation)과 “엘림경로센터” “엘림시니어데이케어센터”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고 성은 자매는 지난해 5월 뉴욕주 상원에서 주는 ‘위대한 여성상’ 받은 바 있다.

(기사제공: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현 선교사(9회, 멕시코), 김지연 선교사(11회, 터키), 김민선 선교사(14회, 니카라과), 유한수 목사(6회, 예수사랑장로교회), 정기태 목사(18

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등 총 5명이다.

총무 정기태 목사는 광고를 통해 장소와 식사를 제공한 퀸즈장로교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허윤준 목사는 신학교 동문장학금이 40% 인상돼 7백 달러가 됐으며 참석된 재학생들을 고무시키기도 했다.

퀸즈장로교회가 준비한 2부 만찬은 이영상 목사의 식사기도 후 시작됐으며, 경품 추첨을 통해 유여행사가 제공한 한국왕복 비행기표 등 푸짐한 선물을 나눠줬다.

(유원정 기자)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 신년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이단대책, 기성교회 자체정화 더 시급”

### 뉴욕교협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 신년 모임

뉴욕교협 신하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 5일 신년 첫 모임을 갖고 신임 총무로 박이소라 열 목사를 선임했다.

유상열 목사는 본 이단대책위는 이단을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라, 지역내 이단을 경계하고 교인들이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홍보하고 정보 나누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연합체라고 말하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유상열 목사 인도로 기도 이성한 목사, 설교 조부호 목사, 축도 박마이를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부호 목사는 마가복음 12장 18-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에도 이단 발생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있다”며, “이단은 성경지식에 대한 부재에서 오는 오해로 생기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 목사는 “크리스천의 처세 원리는 첫째 환난이 오면 참는다, 둘째 유혹은 피한다, 셋째 이단은 대적한다. 영지주의자 말시온이 교회를 미혹할 때 정경화 작업이 일어나 교회가 살아난 것처럼 진리로 비진리를 물리쳐야 한다. 노아방주가 역청으로 물을 막은 것처럼 밖에서 역청을 치는 일이 이단대책위의 역할이며 안에서 역청을 치는 것은 교회내 교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회를 깨우는 나팔수가 절실한 이때에 이단대책위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상열 목사가 준비한 “이단 대책 및 방지를 위한 기본 종합연구”가 배부됐다.

연구”가 배부됐다.

책자는 이단에 대한 일반적, 성경적, 신학적 개념과 성경에 기록된 이단표현, 이단 사이비 사고 개념을 정의하고 이단 발생원인, 이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교회를 어떻게 괴롭히나? 언제 이단에 빠지게 되나? 어떻게 대처하나 등 목회자들이 손쉽게 이단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했다.

유상열 목사는 “교인들을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성경 및 교리교육이 필요하다”며,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열심히 강조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유 목사는 “이미 이단으로 알려진 것보다 제도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비 성경적인 모습은 사람들을 이단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며 기성교회 자체 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관련하여 현재 뉴욕에서는 목사가 치유집회에서 한번 기도해 주는데 200-300달러의 돈을 공식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 이날 옹서버로 세기총 이단대책 상임위원 이종명 목사와 김연규 목사가 참석했다.

김연규 목사는 최근 합신 측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목주(은혜로운교회)에 빠진 청년교인들에 대한 간증을 하며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5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5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5.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5)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1(Mon.)-13(Wed.), 2015 (New York); May 15(Fri.)-18(Mon.), 2015 (Brazil Iguazu)
- 2) Place: New York; Adria Hotel & Conference Center  
221-17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Brazil Iguazu; Inquire with the Clerk of the ExaminationCommittee :

###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Genesis 6:1-4
- (2) NT Exegesis Text - Acts 9:10-19
- (3) Thesis Topic - Discuss the necessity of denominations from a Reformed perspective.
- (4) Sermon Text - Isaiah 40:26-31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 3.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syhan91@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Samhan-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5.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 (US)

###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5.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5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the candidates.
-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9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9-22).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appropriate examination dates (New York: May 11-13, 2015 or Brazil: May 15-18, 2015) through Rev. Young Kim (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7. Submission Address

Rev. Young Kee Kim / Address: 10378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2  
Cell : 443-520-5242 E-mail : youngkey48@gmail.com

###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Kil Ho Lee (718)309-3376 (kilhlee2003@yahoo.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Young Kee Kim (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Yun Joon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총회장: 정관일목사

서기: 최동진목사

고시부 부장: 이길호목사

고시부 서기: 김영기목사

# 남가주그리스도의교회연합회 “친화하는 한해”

## 창립40주년기념 연합찬양제 및 회장단 이취임예배

남가주그리스도의교회연합회(회장 엄규서 목사) 창립 40주년 기념 연합찬양제 및 2015년 회장단 이취임예배가 8일 오후 3시30분 나성중앙교회(담임 이성도 목사)에서 열렸다.

엄규서 목사는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40주년은 뜻 깊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세우주셨다.

올해는 교역자간 친화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산하 모든 교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상생해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열 목사(종무)의 사회로 시작된 40주년 기념 및 이취임식은 최태시 목사(보라교회)가 기도했으며 이성도 목사(테평양서남지방회(제

사회) 회장이 설교했으며 엄규서 목사가 취임사를 했다.

이어 기념패증정 시간을 가졌으며, 안대진 목사(수석부회장) 축사, 이승철 목사(밸리교회) 격려사, 김

정환 목사(회계)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찬양제는 최장식 목사(연합회 서기)의 사회로 시작돼 나성중앙교회, 예수비전교회, 산타모니카교회, 월서교회, 벨리기도교회, 나눔동산교회, 싸우스케이교회 등이 출연해 찬양했으며 ‘헨델의 메시아’ 44번 할렐루야를 이날 참석한 자들이 합창한 뒤 엄규서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그리스도의교회 연합회 창립 40주년 기념 연합찬양제에서 연합성가대가 헨델의 메시아를 부르고 있다



APU한인동문회 주최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교회성장을 위한 리더십과 코칭” 주제

#### APU한인동문회 목회자세미나 강사 김경섭 박사

아주사피사피대학교(APU) 한인 동문회(회장 광경동 목사)가 주최한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1월 30일 오전 10시30분 본교 신학회가 위치한 Duke Academic Complex에서 ‘교회(개인)의 성장을 위한 리더십과 코칭’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강사는 김경섭 장로(한국리더십센터/한국코칭센터 회장)가 나섰다.

김 장로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말씀이며,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빠져나올 때 교인들에게 좋은 기분이 들도록 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현대는 감성시대 시대다. 더 이상 이론적 논리적인 것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며 지혜가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당과 코칭에 대해서도 상당은 부족한 부분을 보통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며, 주로 과거를 진단하고 보다 나은 현재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상당사가 해결책을 제시해주게 되는데 반해 코칭은 보통의 것을 탁월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현재를 보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이룰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당사자가 문제의 해결을 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영화 퀘바디스 LA지역 상영회가 생명찬교회에서 상영회를 마치고 열린 패널토의를 하고있다.

### 영화 “퀘바디스” LA 상영회 생명찬교회에서

#### 상영후 패널토의... “무너진 후 자정능력 기대”

LA기윤실, NTS West(New Theological Seminary of the West) 그리고 뉴스M이 공동주최한 영화 “퀘바디스” LA 상영회가 7일 오후 5시 생명찬교회(담임 김동일 목사)에서 열렸다.

영화 “퀘바디스”는 영화제작을 맡은 김재환 감독이 “예수님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의 죄 판을 엮는 이야기”라는 소개처럼 성장주의, 성직주의, 승리주의에 사로잡힌 한국교회의 현실과 돈, 권력, 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목회자들의 민낯을 가장 없이 보여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다.

상영을 마친 후 박상진 LA기윤실 간사의 진행으로 열린 패널토의는 김기대 목사(평화교회)와 송병주 목사(선한정치교회)가 패널로 나서 토론에 임했다.

먼저 송병주 목사는 “영화를 보면서 한국교회의 성장에는 배설물을 깔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을 받았

다. 교회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오랫동안 스스로를 속이고 속여왔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대 목사는 “영화를 통해 느낀 것은 목회자와 신도들이 자정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즉 한국사회의 성장에 교회가 편승했으며, 그것이 대형화와 맞물려 결국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속이려드는 모습들로 나타내게 된 것”이라 꼬집었다.

김 목사와 송 목사는 한국교회의 자정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희망을 보일 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너짐을 경험하고 난후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이음카페, 찬양사역자 채한성 콘서트

#### with Friends-Acoustic Worship in L.A

찬양사역자 채한성 씨의 콘서트가 5일 오후 7시 이음카페(대표 김동일 목사)에서 열렸다.

‘채한성 with Friends-Acoustic Worship in LA’라는 주제로 열린 콘서트는 싱어송 라이터 하지에 씨가 찬조 출연했으며, 한국의 미래지도자훈련학교 프로그램 운영자 지난 1월 8일 미국을 방문한 중고등 학생들이 특별 찬양하는 시간도 가졌다.

채한성 씨는 “이번 콘서트는 미래지도자훈련학교 프로그램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게 됐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훈련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믿지 못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채한성 씨는 “이음카페라는 공간에서 열리는 찬양콘서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되는 일이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West

### 피중진목사 미주지역 순회집회

피중진목사 미주지역 순회집회가 동부와 서부지역에서 개최된다. △23일-25일: 뉴저지 벨엘장로교회(담임 전광영 목사) △26일: 필라델피아 글로벌장로교회(담임 김경순 목사) △27일: 글로벌미션 칼리지 △28일: 남가주한인목사회 △3월 1일: (오전) LA 안디옥교회(담임 지윤성 목사), (오후) LA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 3.1절 연합예배.

### 제2회 남가주 미스바 연합기도회

제2회 남가주 미스바 연합기도회가 ‘함심하여 구하면 이루어 하시리라’라는 주제로 21일(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바이올리나대학교 채플실(13800 Biola Ave. La Mirada)에서 열린다. 미스바 철야기도회와 남가주 미스바 연합기도회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의 강사는 최요한 목사(남사울비전교회)이며 참여단체는 골든게이 트신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미주장신대학교, 웨퍼드신학교, 아주사피사피신학교, 월드미션대학교, 탈봇신학교, 폴리신학교, CMF, 자마, KCCC, Fire Crusade 등이다.

▲문의: (714)315-4617, (213)261-1583

###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 ‘스물한번째 이야기’

LA한인타운 한복판에 기독교정신이 깃든 건강한 공영문화를 심고 있는 문화사역단체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가 주최하는 파킹랏 콘서트의 2015년 첫 번째 공연인 ‘파킹랏 콘서트 스물한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28일(토) 오후 7시 콘서트 장소인 가주영여학교 1층 특별공연장(639 S New Hampshire, LA)에서 열린다. 6시15분경부터는 출연자와 청중들을 위해 갖 구운 핫도그와 신선한 커피가 제공된다.

▲문의: (213)999-4909

### 미주목성연 인지치유 세미나

미주목성연(GMBI America)이 주최하는 “인지치유 세미나”가 16일(월) 오전 10시-18일(수) 오후 2시 동문교회(담임 김상호 목사)에서 개최한다. 주제는 성경적 인지치유(그리스도인의 사고전환훈련)이며 강사는 박승호 목사(GMBI 원장, 생명생교회)이다. 참가비는 40달러(교재, 점심).

▲문의: (626)710-7050김병진 목사, (714)397-6245우상림 목사

###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설립30주년 부흥성회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는 설립30주년 부흥성회를 오는 13일(금)부터 15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이형석 목사(타코마중앙장로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3일 저녁 7시30분, 14일 오전 6시, 저녁 7시, 15일 오전 8시, 11시.

▲문의: (562)402-2919

### 토랜스 연합감리교회 말씀잔치

토랜스연합감리교회(담임 김광진 목사) 사순절 말씀잔치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강사로는 이상현목사(드림교회), 정상용 목사(금란교회), 김세환목사(LA 연합감리교회)가 서며 22일 주일에 배는 이창순목사(전 월서연합감리교회)가 맡는다

▲ 문의: (310)617-1138



찬양사역자 채한성 with Friends - Acoustic Worship in L.A 콘서트가 이음카페에서 열렸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승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 오전 6:00(토)	<b>덴버에담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b>벨엘교회</b>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원년부: 오후 1:30 청소년부: 오전 10:00 주일유년부: 오전 10:00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 중부예배: 오전 11:00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수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b>알칸사 제자들과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b>앵커리지델리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b>엘파소델리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b>큰무리교회</b>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 새벽 6:00(토)	<b>타코마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말단)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b>템프장로교회</b>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말단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오전 6:30(토)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6:0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한국갤럽 1984-2014 종교의식 변화 조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인 창조론을 진리로 믿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지난 30년 사이 21%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다원주의' 등 타 종교인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늘었다. 여론조사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인의 종교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말 '종교 실태'를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1984년 첫 조사를 실시한 이래 89년, 97년, 2004년에 이어 2014년까지 30년 동안 총 5차례 비교 조사를 실시한 내용 가운데 개신교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들여다봤다.

◇창조·심판 등 '기독교적 종교 성향' 갈수록 멀어져=전체 응답자 가운데 '이 세상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누가 만들었다'(창조론)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34%였다. 84년 조사 결과(46%)보다 12%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 세상 종말이 오면 절대자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심판론)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도 지난해 25%로 30년 전(35%)에 비해 10% 포인트 떨어졌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5일 "종교사회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 생활수준이나 소득 정도가 높아지면 종교적 신념은 약화되는 경향을 띄게 된다"면서 "이 같은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심은 더 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창조론'에 대한 긍정적 비율은 30년 전 80%에서 2014년 59%로 21% 포인트나

지난 10년 사이 '영혼·기적' 등 초자연적 존재 유무에 대한 기독교인의 긍정적 비율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죽은 다음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2004년에는 81%가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2014년에는 79%로 떨어졌다. '기적'에 대한 질문에서도 긍정적 답변 비율은 같은 기간 84%에서 82%로 낮아졌다. 정 교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절대적 진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내세관 자체가 불확실해지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기독교인 경계심 갈수록 높아져=여러 종교의 교리는 결국 같거나 비슷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이른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그렇다'고 답한 기독교인 비율은 지난해 49%로 집계됐다. 30년 전(65%)보다 16%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조사 때마다 점점 낮아졌는데, 지난해 타-비종교인의 비율(약 77%)과 비교할 때 평균 28% 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엇갈린다. 기독교의 '절대 진리' 또는 '신앙의 근본'을 고수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보는 긍정적 시각이 있는 반면 타 종교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읽힌다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창조·심판론 같은 기본 신앙교리를 믿지 않으면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거부감만 높아지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 '창조론' 진리로 믿는 기독교인 10명중 6명뿐...30년새 21%P↓

줄었다. '심판론' 역시 같은 기간 76%에서 61%로 15% 포인트 감소했다. 창조론과 심판론에 대한 평균 감소치는 18% 포인트였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창조·심판 교리를 믿는 기독교인이 한 세대(30년)가 흘러가는 사이 100명 중 18명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배 침례신학대 교수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기독교의 활동이) 현실 세계에 갇혀있다 보니 죽은 이후 하나님 심판에 대한 교육 등이 소홀하게 취급된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현실의 삶뿐만 아니라 건전한 종말론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있는 신앙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인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보는 긍정적 시각이 있는 반면 타 종교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읽힌다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창조·심판론 같은 기본 신앙교리를 믿지 않으면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거부감만 높아지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 옛 교회건물 사이비이단에 매각 사실 밝혀져 포항지역 모 교회, "각별한 주의" 재발 방지대책 촉구

경북 포항지역 한 교회가 신축·이전하는 과정에서 옛 교회 건물을 이단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교회는 지난해 교회를 신축·이전하면서 옛 교회 건물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약 대리인의 말을 믿고 건물 매각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리모델링 과정을 이 상하게 여긴 교회 관계자에 의해 옛 교회 건물이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에 매각했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매각과정에 참여했던 교회 측 대리인들은 '이단에 속한 단체에게는

매각할 수 없다' 점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했고, 매수 대리인도 '매수인이 이단과 관련된 단체가 아니며 부동산업자로 딸에게 유치원을 넘겨주려고 한다'며 이단과 관련된 단체가 아님을 강조했다. 계약의 당사자였던 노회 유지재단의 대표 역시 교회를 매각한 경험이 수차례나 있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 건물을 인수한 문제의 단체는 사망한 전 교주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다가 현재는 살아있는 그의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며 시

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온라인 정보와 각종 홍보책자, 일부 우호 언론을 통해 자신들이 사회봉사상을 수상한 건전한 단체라는 사실과 폭발적인 교세를 자랑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이 단체 내부조직 봉사단체 후원회장을 맡았던 한 연예인이 이 단체가 사이비 종교 집단인 것을 알고 후원회장을 사임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단체가 매입한 기존 교회는 전국에 20여개가 넘고 매각 대금도 1000여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기존 교회의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사이비이단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역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

회의 건물을 인수하고 있으며 최근 에 분당 지역에 500여이 넘는 교회를 28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 계약의 당사자인 지역교회는 70년 이상 복지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 교회다. 교회는 성장의 터전을 이단에게 넘겨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가운데 주변 시장 상인들도 이단 교회가 지역 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역교회 관계자는 "이 단체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교회 매입을 가속화 할 수 있어 건전한 교회가 허약아침에 사이비이단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각한 주의가 요청 된다"고 말했다.

## 기감 "세계 파송 선교사 초청 선교대회" 아펜젤러-스크랜턴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헨리 아펜젤러(1858-1902)와 메리 스크랜턴(1832-1909)의 한국 선교 130주년을 맞아 세계 곳곳에 파송한 선교사들을 초청해 기념선교대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아펜젤러와 스크랜턴은 1885년 각각 임국해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미국 감리회 선교사들이다. 기감 선교사관리부에 따르면 선교대회는 오는 4월 8일 인천 계양구 계산중앙교회에서 '글로벌 선교 선진화, 건강한 선교사와 건강한 교회'를 주제로 열린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선교 하우와 새로운 선교 정책을 공유하는 포럼, 선교 열정을 되새기는 영성집회 등을 갖는다. 선교대회가 열리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초기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더듬는 행사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동대문 서울대병원 이화여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등지를 방문한다. 선교사관리부 부장인 김영주 목사는 "세계 74개국에서 사역하는 기감 파송 선교사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며 "많은 인원을 동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가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선교 비전을 되새기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한선교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감은 선교대회가 열리는 주간인 4월 5-10일 해외 선교사들을 상대로 '아펜젤러-스크랜턴 초기 선교문화탐방' 행사도 진행한다. '아펜젤러길' '평화통일길' '스크랜턴길' '아펜젤러 순직순례길' 등으로 명명된 곳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서울, 인천, 충남 서천, 전북 군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아펜젤러와 스크랜턴이 남긴 문화유산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감은 선교문화탐방 행사를 앞두고 이들 순례길의 의미를 정리한 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선교대회나 선교문화탐방 참가를 희망하는 선교사는 기감 홈페이지(kmcm-mission.or.kr)에 접속해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02-399-4341).

## 이라크 선교단체 피랍사건 영화제작 최찬 감독, '블러드워스' 허민영 목사 이야기

2004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됐다 돌아온 선교단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이 추진되고 있다. 선교단 일행 7명이 5차례 억류됐다 풀려난 과정이 영화 줄거리다. 최찬(51) 감독은 8일 "'블러드워스(Bloodworth-피값)'라는 제목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미국 할리우드 시스템으로 영화를 만들기 위해 현지 투자사 프린스베리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 감독은 홍보대행사 HnB인터내셔널 대표이기도 하다. 올해 촬영에 돌입하고 내년 말 개봉이 목표다. 최 감독은 당시 단장이었던 허민영(66·세계선교단 체중연출 대표의장) 목사 역은 배우 안성기가 내정됐다고 전했다. 이외 배우 권오중도 출연을 수락한 상태라고 한다. 그는 "블러드워스가 예정대로 개봉된다면 영화 '인터뷰'만큼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2014)는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을 암살을 다룬 할리우드 코믹 영화로 세계적 화제가 됐다. 이슬람 무장 세력의 테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블러드워스가 자칫 이슬람 무장세력을 미화하고, 생환한 이들을 영웅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무장세력은 선교단 일행에게 닭고기와 스프를 제공하는 호의를 베풀었다. 이 선교단은 생환

했지만 두 달 뒤 피랍된 김선일(당시 34세)씨는 목숨을 잃었다. 최 감독은 "허 목사의 영화 제작 제안을 받고 기도하던 중 한국에서 최출된 수많은 선교사들이 떠올랐다"며 "진정한 선교의 의미를 영화에 담고 싶다"고 했다. 영화 시나리오는 허 목사가 당시 경험을 기록한 수기 '분노와 사랑'을 바탕으로 쓰였다. 이 책에 따르면 허 목사 일행 7명은 2004년 4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거쳐 북부 모술로 향했다. 모술에는 3년 전 허 목사가 소속된 선교단체가 세운 교회가 있었다. 이들은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대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허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땅에 왔던 선교사를 생각하며 이라크에 갔다. 당시 나는 살아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살아 돌아간다면 기적같이 살아난 과정을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는 생환 과정을 영화로 만드는 데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80여 차례 기도회를 가졌고 매년 생환 감사예배를 드렸다. 10년 만인 지난해 6월에는 수기를 출판했다. 그는 "영화를 통해 이슬람인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 소래교회 정확한 설립연도는?

### 1883년? 1884년? 1885년?...역사신학계 견해 엇갈려

1883년일까, 1884년일까, 아니면 1885년이 맞을까. '한국 최초의 자생교회'인 소래교회(또는 송천교회)의 정확한 설립연도에 대한 설이 분분한 가운데, 1885년도가 유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규무 광주대 교수는 4일 "1925년 8월 12일자 시대일보(1885년)을 교회 설립연도로 삼아" 그해 8월 6일 '송천교회 40주년 기념식'이 거

행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날 행사에서 교회 역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송천교회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서경조 목사가 담임으로 있었던 때라 그 근거 역시 분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경기도 용인의 송천대신대원 양지캠퍼스에 복원된 소래교회 입구에 적시된 교회 역사에 따르면 소래교회는 서상륜·서경조 형

제가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일명 소래마을)에 세운 초가집 예배당으로 1883년 5월 16일에 설립됐다. 조선일보(1933년 5월 8일자)와 동아일보(1933년 6월 2일자)에도 1883년을 설립 기점으로 삼아 '송천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기사가 실렸다. 한국기독교사(1983) 등 또 다른 문헌에는 '1884년 송내(송천리)에 한국인의 손으로 최초의 예배당이 설립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서경조 목사가 1925년 직접 집필한 '서경조의 신도와 전도와 송천교회 설립 역사'에서 서 목사는

1883년 소래로 이주한 뒤 2년 뒤인 1885년 형인 서상륜을 만나기 위해 상경하기 전까지 전도 등 공개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서경조 목사가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한 시기는 1885년이 맞다는 게 한 교수의 주장이다. 한 교수는 또 기독교를 비롯해 교회들의 기념(紀年) 설정 문제와 관련, "기년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것이 타당한지 역사신학계에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어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 봄 성지순례 일정>**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2015. 2.16~2.26 -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3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 9 - 터어키 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2015. 3. 2~3.12 - 터어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14 - 터어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외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등목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선교 및 정담,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 E-mail : choigh1115@gmail.com
-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Olympic Blvd.  
김스현이 강남제인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국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등록된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전체뉴스  
칼럼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 선교의 창 (25)

## 21세기 대학 선교의 진단과 과제

제임스송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대학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향한 못자리란이라 할 수 있다. 그곳에는 젊고 기동성 있으며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차세대 지도자들이 집안으로 있다. 18세기 독일의 할레대학과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 그리고 19세기 초 미국 윌리엄스대학을 보았듯이 젊은 청년들의 복음화는 민족과 국가를 살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희망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  
2. 기독교 대학인의 실태  
오늘날 몇 개의 알려진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가면 몇%가 남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교포 2세대 경우에는 7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 그들이 어려서는 부모를 따라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으나 이제 장성하여서는 신앙을 떠나 세속의 물결에 휩싸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있는 인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3. 대학선교의 과제  
첫째는 기독교 대학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독교 대학이 설립 취지와 선교적 소명을 잊고 일반대학처럼 명문대학으로의 발전이나 생존에만 관심 갖게 될 때 그 존재의미를 잃게 된다. 본 대학의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들로서 강의실 안과 밖이 모두 선교의 장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줄 수 있도록 채플이나 다양한 신앙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비전트립(vision trip)이나 단기선교훈련을 통해 선교지와 연결하며 그리고 자신이 전공하는 학문을 통해 전문인 선교(tentmaking)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대학선교야말로 정제된 기독교회에 동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신선한 물꼬를 틀 수 있다. 그들은 곧장 사역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최대의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선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현대에 이르러 대학가의 선교 실태는 어떠한가? 대학촌에 활화산 같은 복음의 역사가 분출하고 있는가? 이렇게 미약한 몇몇 선교단체가 그것도 각개전투 양상으로 선교해서 어둠의 권세를 타파하고 세속의 격랑을 넘을 수 있을까? 역사의식은 문제의식과 해결의식이다. 대안을 말하기 전에 이 장에서 문제의식으로 대학선교를 짚어보기 원한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대학생으로서 정체성(Identity)을 가진 자들도 갈들이 많다.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다. 순전히 지역교회만 속

둘째는 통전적인 선교 신학이 필요하다. 회심을 통한 영혼구원과 교회개혁에 집중된 전통적 선교방식은 개인주의적 신앙관과 제국주의적 선교로 귀착되기 쉽다. 그런 선교전략으로는 오늘날 대학

맞는 말  
왜 대학생 선교를 해야 하나? 그들 각각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역군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세상의 때가 덜 묻어있다. 이는 복음에 대한 순수한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학선교 현장은 그렇게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이다.  
열망과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어디에 있는가? 대학이다.  
따라서 대학 캠퍼스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선교지이다.

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선교단체와 지역교회에 양방향으로 속하여 활동하는 부류가 있다. 전자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성실하되 야성이 떨어진다. 이들은 신앙의 굴곡이 없이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며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 등 주로 봉사 위주 활동을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배움이나 훈련의 기회가 적다.

을 지배하는 세속주의 문화와 계몽주의 세계관을 극복할 수 없다. 대학선교는 복음전도를 통한 개인의 회심이나 양육과 동시에 대학 문화 및 사회구조의 변혁을 위한 통전적인 선교신학에 기초해야 한다.

죽목치 않다. 그들을 둘러싼 문화환경은 치열하다. 사상적으로 절대 진리가 자리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 속에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을 지향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기능적인 지식을 습득하기에 급급하며 심적으로 여유가 없다. 대학 안에 절대 다수의 불신자 학생들은 욕망을 따라 자기가치를 앞세우며 복음에 냉소적이다. 심지어 크리스천 학생들까지도 신앙과 생활의 괴리가 크며 선교적인 의식을 갖진 자가 많지 않다. 따라서 대학선교를 향한 과제는 산적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대학으로서 정체성의 문제, 통전적인 선교사상, 사이버 시대에 대한 사역적 대처, 교회와 단체 간의 연합, 선교를 향한 네트워크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무장된 것이 없다.

반면에 선교단체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열심이 있되 신앙적 굴곡이 크다. 이들은 많은 훈련 프로그램과 공동체적 활동으로 인하여 신앙적 뜨거움이 있다. 그러나 영성공동체의 중복으로 인하여 마음 분산, 시간분산, 재정분산이 되어 갈등하는 예가 다 반사다. 인간은 제한적이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다. 장차 사회에 나가 실력 있는 기독교인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존음을 아껴 학습해야 할 시기에 여기 저기 모임과 외면적 활동 위주로 살다보면 자칫 학생으로서 자기 본분을 놓치기 쉽다.

셋째는 사이버 시대 혹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전략을 세워야 한다. 오늘날 대학생들은 반도체 칩(chip), 카드(card), 케이블(cable), 코드(code) 속에서 사이버(cyber)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주도함으로써 기존질서와 세계로부터의 변화(change)를 추구하는 '사이보그(cyborg)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디지털 세대로서 그 존재양식이 이미지(image)이고 존재하는 시공간은 시뮬레이션(simulation)이며 존재하는 방식은 네트워크(network)이다.

이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성장이나 기관의 세 불리기 차원보다는 흠이 없는 교회로서 선교적 시각으로 대학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도록.

그러므로 교회나 선교단체는 대학청년들을 근시안적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먼 내일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 따라 은사를 개발하며 충성되고 실력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 선교 소식

## My Kids World-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지난해 연말 가장 바쁜 연말연시를 보냈다.

12월과 1월중에 두 팀의 의료 봉사 팀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건강 검진과 어린이 심검검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지난 12월에는 캄보디아 현지인 크리스천 의사그룹과 간호사, 학사 18명과 비전센터 사역팀 15명이 함께 실시한 의료 선교를 통해 홈스테이 어린이 250명의 건강 검진과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다.

특별히 My Kids World에서 후원하는 홈스테이 고아 컨 속 앵 학생은 "이번 의료사역에서 어린이들의 접수를 받는 일에 봉사하게 되었는데 이런 봉사는 처음이라 기쁘고 감사했다"고 마음으로 표했다.

한편 지난 1월 9일부터 16일까지는 My Kids World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서로사랑하는교회(한국) 17명의 선교팀이 현지 사역현장을 방문했다.

선교팀들은 My Kids World 비전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 사역과 함께 주일에는 베딕살라교회와 크발크로이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심검을 실천했으며 소망고아원과 브니엘고아원, 학교 등을 방문하며 어린이들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 주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한국 선교팀들은 "이번 선교를 통해 홈스테이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며 너무 많은 것을 느꼈다"며 자신들의 간증을 나누고 즐거움으로 어린이들과 시간을 가졌다.

신승호, 순옥 선교사

My Kids World는 2010년 5월 비영리단체 NGO 가입되어 있으며 부모 없이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고아들과 홈스테이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대상국은 캄보디아, 케냐, 코트디부아르,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멕시코 어린이들로 가난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나의 가족으로 삼아 양육하는 국제 구호기관이다.

특히 My Kids World 일대일 결연사역은 한 어린이를 선정하여 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돕는 사역으로 이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고 한 생명을 사랑하는 통로를 제공한다. My Kids World에서는 선교와 구제에 사명과 관심 있는 교회와 개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562)322-2919 / 690-9800  
E-mail : sharon215@hanmail.net



비전센터에서 의료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룩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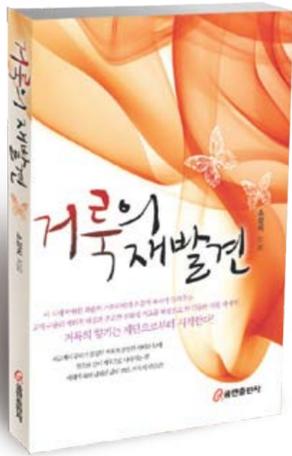
정결을 넘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

## 레위기 속에 감춰진 값진 보화, 거룩의 재발견!

이 시대 탁월한 복음의 스토리텔러 소강석 목사가 들려주는 철저한 레위기 본문의 분석과 견고한 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

## 감동의 거룩 시네마!

거룩의 향기는 제단으로부터 시작한다!



259면 / 11,000원

# 거룩의 재발견

소강석 지음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꼭 한번은 읽어야 할

완전한, 참 거룩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필독서!



###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민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미션 루터 킹 페어리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교과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증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생명나무  
503면 / 16,000원



스택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사탄의 레위기  
264면 / 10,000원



레위기의 산을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1월 31일 오후 야마랑길라에서 교회 헌당예배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을 봉헌하면서 북받쳐 오르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대하7:1). 주님의 임재가 드러지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일 아침 아자꾸알과교회에서 성찬식을 인도했습니다. 주님의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면서 Santa Cena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주"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모처럼 맑은 날입니다. 화창한 햇살이 따뜻하네요. 오랫동안 구름 속에서 햇빛 없이 지난 산골 마을에 하나님의 포근함이 있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름다운 산천을 바라보면서 전에 쓴 "선교사는 누구인가?"를 다시 읽으면서 선교편지를 대신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선교사입니다. 가끔 "선교사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인 나는 누구인가?" 선교지에서 오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정체성이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미국 사람인가? 그렇다면 온두라스 사람인가? 저는 주로 온두라스 교회에서 "나

는 한국에서 태어났기에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사람입니다. 내 심장은 온두라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온두라스 사람들은 매우 좋아하지요. 실제적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사고를 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성경은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벧전1:1)이며 "천국 시민의 삶"(빌3:20)이라고 하듯이 나그네의 삶을 이곳 온두라스에서 살고 있지요.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첫 안식년(2005)을 맞아 미국에 돌아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운데 "대장균" 이야기를 하셔서 물어보았지요. "대장균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 상대방은 정말 묘한 표정으로 "대장균을 모르세요?" 마치 외계인을 보듯이 의아해 하더군요. 아이들과 함께 K-마트를 가서 그 크고 웅장(?)함에 놀랐지요.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우리들은 미국에서 20-30년을 살았었는데 마치 미국에 생전 처음으로 온 모양으로... 엄청난 종류의 요구르트를 보면서 "선택의 혼란"에 빠지기도 했지요. 한번은 선교회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났었지요. 운전하시던 목사님은 혼수상태였지요. 그 분의 당시 최신형 Blackberry 전화기로 사무실로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 방법을 몰라서 지나가던 멕시코 사람의 구형 전화기를 빌려서 전화를 했지요. 당시 온두라스에는 전화기가 없었거든요. 정말 황당한 순간이었지요.

선교사들은 어눌한(?) 사람입니다. 균형을 잃은 사람이기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한 때 미국에 살 때만 해도 평범한 보통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삶을 즐겼던 사람이었지요.

시대에 뒤지지 않게 살았지요. 좋은 사무실에서 제법 큰 일들도 감당했었지요. 선교지로 떠나면서 서서히 변화가더군요. 이제는 말이 달라졌지요. 어린 다섯 아이 데리고 정든 땅 시카고를 떠나면서 여러 사람들의 "동정과 비난"(?)도 받고, 한편으로는 존경(?)도 받으면서 "본토 친척 아버의 집"을 떠났지요. 온두라스도 모자라서 "중미를 하나님께"로 부르짖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서 말합니다.

지금은 중미의 작은 한 나라 온두라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산골



야마랑길라교회 봉헌예배

렌카 인디언 마을에서 살고 있지요. 마치 하나의 눈을 가진 원숭이 마을에 눈 두 개를 가진 원숭이가 비정상인 것 같이 아무도 반기지 않는 렌카 인디언 마을에서 살아 갑니다. 마치 시간은 정지된 듯 한 분위기와 무감각한 공간에서 살아 갈 뿐입니다.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잠자는 아주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마을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전기도 없고, 인터넷과 전화도 안 되는 마을이지요. 우리 마을에서 약 20분 내려가면 작은 타운에 스페란자가 있습니다. 약 만 명 정도 사는 시골 작은 도시이지요. 이제는 거기만 가도 낯설지요. 가끔 더 큰 도시로, 혹은 미국을 방문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

각을 하곤 합니다. 선교사는 균형을 잃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래 전 그토록 좋아했던 일들이 이제는 관심이 없어 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일에 무감각해지곤 합니다. 미식축구에 흥분해 하는 성도들을 보며, 올림픽 경기와 월드컵의 화제, 그리고 세상뉴스에도 무관심이 되고 시큰둥하고 무감각해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제는 한국말로 안되고, 영어도 안되고, 그렇다고 스페인어도 안 되는 어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지화(?)되면 보통 사람 여러분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기에 민첩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겠지요.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도 아닌 사람, 온두라스에 살면서도 온두라스 사람이 아닌 사람, 미국에서도 불편하고 한국에서도 불편한 사람... 백화점에서 비싼 옷 가격에 주춤하며 선택하기도 못하고, 고급 스테이크 식당에서 스테이크 주문도 망설이면서도 동네 마을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성경을 안겨줄 수 있기에,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기에,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에 분명히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순간보다는 영

원을 꾸꾸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시공의 변화가 없는 곳에서 나는 왜 존재하여야 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가? 타운에서도 천대받는 우리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도 자존감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적인 신앙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신앙으로 변화할 때까지? 그리고 소수의 변화된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토착교회가 세워지는 그 날까지? "대장균"을 몰라도, 최신 유행들을 알지 못해도, 가끔 인터넷으로 보는 맛깔나고 군침도는 맛있는 것들을 먹지 못해도, 하이테크를 사용할 줄 몰라도,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 보고할 때 세련되게 말하지 못해도, 바깥 세상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살아갈 지라도...  
나그네의 삶이 이 땅 온두라스 렌카 마을에서 보며 천국 시민의 삶을 소망하는 한 촌뜨기 아날로그 선교사, 그는 분명 존재의 이유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선교사는 틀림없이 균형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기준인가?" "당신의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인가?"

지난 한달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기도의 줄을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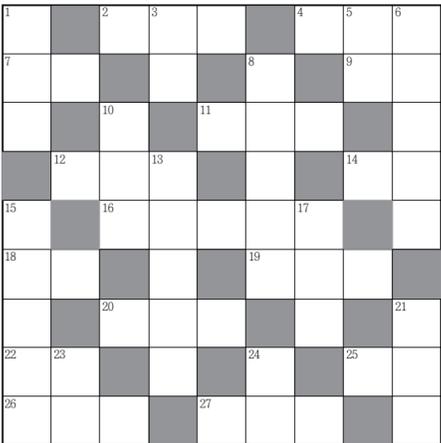
- 기도 제목
1. 삶으로 그리는 복음을 위하여
  2. 교회사역: △교회건축: Villeda Morales교회(3월 중에 시

작), 리오폴로라도교회(2월 9일부터 공사시작), Santa Barbara Nisperales교회(비가 그쳐 산으로 통행이 가능한 기간), 몬테베르데교회, 카카오교회, Marcala 인근의 Opatoro교회 △세워진 교회의 부흥: 아자꾸알과교회, 몽케카구아교회, 에스페란자교회, 셀롬교회, 뿌에블로 비에호교회, 까스타노교회, 세이비타교회, 몬테베르데교회.

3. 학교사역: 유스 오케스트라 사역 및 정규학교인 La Semilla de Mostaza Christian Bilingual School (기숙사학교) 시작을 위하여
4. 목회자 훈련 및 미래 지도자 양육: △SEAN 목회자 훈련을 위하여 △멕시코 유학: 2015년 8월에 Olvin, Joel, Brenda를 위하여(멕시코 올네이션신학교/ 후아레스, 이상원 선교사)
5. 동역자들을 위하여
6. 단기선교 사역을 위하여: 안식년과 유진이의 중국 선교사 파송 일정으로 올해 단기선교는 7월 말까지 설길 수 있습니다. △온두라스 단기선교를 계획하시는 교회는 미리 준비하시고 일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선교사 가족들을 위하여: △안식년(8월부터)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안식년 사역을 위하여 △장녀 유진이가 8월 중순에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파송예배와 초행길을 함께 하고픈 아비의 마음으로 8월 중 중국 및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진이의 중국 선교사역과 배필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균 최은경 선교사 이메일: segyunjang@gmail.com

### 십자말 • Cross Word (68)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 <가로 푸는 열쇠>

2. 영원 전(잠8:23).
4. 스바와 함께 향 재료, 보석, 황금 등을 가지고 두로와 통상한 곳(겔27:22).
7. 죄를 벗어나려고 바치는 돈(출21:11).
9. 기혈과 골격(욘20:11).
11.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는 짓(잠24:12).
12.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유대인(신10:23).
14. 르호보암의 손자로 유대의 제6대 왕(마1:7).
16. 에브라임 동북쪽에 있는 촌(수16:6).
18. 이란의 옛 이름. 한때 예금, 인도 등을 정복했던 강대국(스4:3).
19. 앗수르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는 길의 묘사에 기록된 성읍(사10:30).
20. 므낫세 지파의 족장으로 가나안 땅 분배 시에 협조한 사람이다(민34:23).
22. 유대 남쪽에 있는 고을(수15:22).
25. 말의 수컷(렘5:8).
26. 소돔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동네인데 싯딤 골짜기에 있었다(창10:19).
27. 스테반이 박해를 당할 때 신도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중 이 성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설립하니 이것이 곧 이방 교회의 효시다(행11:20).

#### <세로 푸는 열쇠>

1. 죄악에서 인류를 구원해 준 만유의 주 그리스도(욘19:25).
3. 레위사람 하품의 아들,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여 욕을 보인 결과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 죽인 당했다(창34:2).
5. 어린 아이(룻4:16).
6.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 괴롭힌 성전 유산장 바스훌에게 준 별명(렘20:3).
8.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밭을 착고에 든듯히 채웠더니 밤중 잠 되어 OOOOO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매...(행16:24-25).
10. 유대 남쪽에 있던 성읍(수15:26).
13. 유대에 남아있는 유적대의 대장으로 총독 그다라를 도와 준 마야가인의 아들(왕하25:23).
15. 소아시아 동부의 일 대국으로 유대인의 땅이 거주하며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행2:9).
17. 디모데의 외할머니(딤후1:5).
21. 예서의 손자인데 첨 뱀의 소생이다(창36:12).
23.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주님 발에 부은 향료(요12:3).
24. 다윗의 30용사 중 한 사람인 헬레스의 고향(삼하23:26).

#### 십자말 정답



## PRINTING & PROMOTION

# 프린팅 & 프로모션

###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 - 토 : 오전 9:30 - 오후 8:00

- ◆ 기독교서적
- ◆ 기독교용품
- ◆ 일반서적
- ◆ 서예용품 전문
- ◆ 2016년 달력제작

CJ택배    ups    한국으로 택배    미국내 택배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전문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타올

머그컵

교회/매장/기타단체

##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mailto:bookskorea@gmail.com)

#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사역 현장을 찾아서 (2)

푸드쉐어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 섬기는 새생명교회

“작은 섬김 통해 하나님의 사랑 심는다”

적은수의 교인들로 구성된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파우전옥스에 위치한 새생명교회(담임 승광철 목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역주민들을 위해 푸드쉐어(Food Shar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푸드쉐어는 푸드쉐어 본부와 Vons, Ralphs, Trader Joe's, Panera Bread 등 지역 마켓에서 기부하는 물품들을 교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전시에 놓으면 음식을 가지러온 자들이 순서대로 쇼핑을 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김도봉 장로와 김명자 권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눠줄까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푸드쉐어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도봉 장로는 “작년 6월부터 새벽기도 때마다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푸드쉐어 에이전시에서 어떤 분이 찾아와 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희교회가 주차장도 넓고 주택가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거든요. 푸드쉐어 프로그램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 이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 다.”

김명자 권사는 “본부에서 권유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7월 한달간 기도로 준비하고 동네아파트를 중심으로 팜플렛을 돌리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첫날 63가정이 찾아왔습니다.”

푸드쉐어 프로그램은 연소득 6만 달러 이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90-100가정정도 매주 푸드쉐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음식을 가져가고 있다. 사역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며 그중 하나는 필요한 품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승광철 목사는 “이 사역을 하면서 동네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품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알리지 않고 기도만 하는데 마켓에서 그 물건에 대해 가져가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승 목사는 “어떨 땐 저희가 나눠준 차킨을 요리해서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는 그저 나눠준 것 밖에 없었는데 말이예요.”

김도봉 장로는 이 사역이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며, “벤츄라 카운티에 푸드쉐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250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중 탑 5에 들어갈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아



푸드쉐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새생명교회 스태프들(왼쪽에서 두번째가 승광철 담임목사)

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ANC(은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랬었으니까요. 하지만 새생명교회에 부임하고 푸드쉐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선교는 그곳까지 가는 것도 귀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승광철 목사, 김도봉 장로 등 교회 스태프들은 푸드쉐어 프로그램을 통해 접하게 되는 건 작은 섬김을

매주 화요일 오후 3시-5시...연소득 6만불 이하 주민 대상

마도 그것은 받은 사랑에 대해 나누기위한 작은 헌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승 목사는 푸드쉐어 본부에 연락을 하면 필요한 품목을 배달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달로 받게 되는 품목 중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나누어줄 수 없는 음식들도 오게 되며, 교인들이 직접 푸드쉐어 본부와 마켓 등에 찾아가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교인들의 작은 헌신이 신선한 음식을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것도 배달이 되지만 직접 가져오면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승 목사는 가져오는 음식들을 볼 때 지역주민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받은 사랑을 나눠준다는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나눠주는 그로서리 제품들은 저도 쉽게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신선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들을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창고를 열어주신 거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승 목사는 푸드쉐어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건 바로 ‘선교’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흔히 선교하면 비행기타고 남미나 동남아 지역에 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주변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생명교회의 예배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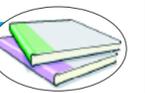
김 장로는 “지난 1년 반 동안 담임목사님 없이 교회가 운영됐어요. 승 목사님이 담임목사님으로 오시게 되자 교인들도 조금씩 목자가 생긴 것에 대해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푸드쉐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네주민들이 저희교회에 EM프로그램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교인이 2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여러 가지가 미비하지만 교육 부서를 비롯해 주민들을 위한 부서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승 목사 역시 “푸드쉐어 프로그램에서 복음 제시는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관계가 형성된 만큼 교회 시스템이 보장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예배를 신설해 교회이름처럼 지역주민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문의: (601)618-9392

(박준호 기자)

새 책 소개



“이 밤이 지나면”

저자 이필주 시인

이필주 시인(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이 자신의 진솔한 삶의 여정을 담은 시집 “이 밤이 지나면”(서울문학출판부)을 출간했다.

“육아! / 사랑하는 내 아들이 / 어제는 너를 / 차디찬 땅속에 묻었다 / 아니, / 나의



진솔한 삶의 여정 담아

쓰린 가슴속에 묻었다 / 이별이 아쉬워서 / 흐느끼는 / 많은 친구와 교우들 / 너는 / 우리들의 가슴을 찌르는 / 아픈 가시로 남았구나 / 내 머릿속엔 / 회리바람 몰아치고 / 창자는 흔들리고 / 뼈가 썩어지는구나 / 우리가 만나서 / 열여섯해 / 울고 웃던 그 추억을 / 어떻게 할까 / (중략).....

“이 밤이 지나면”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시 ‘너를 가슴에 묻고’의 한 절이다.

시집을 꾸미고 있는 ‘시’ 언어 속에는 그녀의 눈물이 흐른 배어있다.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과 잔인한 이별의 아픔이 구절마다 숨겨져 있지만 이 아픔을 시로 승화시켰고 이 슬픔을 견디어 낼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도 놓치지 않고 풀어냈다.

본 시집은 제 1장 ‘눈물’, 2장 ‘바다여 너도’, 3장 ‘그리움을 삼키며’, 제 4장 ‘그리고’로 나뉘어 각장마다 20여 편의 시로 장식했다.

시평을 통해 최은하 시인은 “이필주 시인의 시는 소박하고 정갈한 삶에서 묻어나는 보편적 이미지들을 자기만의 세계에 안착시켜 서정적으로 형상화 시켰다”고 치하했다.

이필주 시인은 서울문학인협회 등단체 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로서 활동하며 수필집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를 발간하는 등 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249-0771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면에서 계속)

특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예수를 만난 후 3년이 지난 후에야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실을 말하면서, 다른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으며 복음 전하는 훈련을 받은 사실을 증거 하였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논쟁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나? 그의 사도권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아야 하나? 물론 의도적으로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려는 악한 교사들의 경우는 전혀 다르지만, 교회가 나름 진지하게 ‘특별

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은 무척 다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지녔다는 것은, 그들이 심각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용하는 복음의 진리가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지니고 있었다. 신앙은 무조건 믿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초대교회로부터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진실성의 여부를 가려내려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후대에 사는 우리는 논쟁을 통해 맺어진 열매를 누리게 된다.

논쟁을 통하여 바울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게 되었다. 만일 논쟁이 없었다면 이런 노력도 없었을 것이다. 만일 초대교회에 이런 논쟁

이 없었다면 분명 이후로 어느 시점에서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야기되었을 것이고, 교회는 큰 문제를 안게 되었을 것이다. 초대교회의 바울의 사도성과 연관된 논쟁은 유익이 되었다. 바울이 ‘특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모인 사도들의 회의에서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2) 성경이 보인다 - 사도행전 9:1-19; 22:3-16; 26:9-19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회심을 세 번이나 언급하였다. 누가의 글은 역사적인 고찰을 전제하지만,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적어도 사도성에 대하여 누가는 바울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방인들을 주께 인도하는 ‘특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 주장하는 사도권이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분명한 사실임을 후대 교회에 알려주려 한 것이다. 바울의 사도성은 복음의 진보를 기록한 역사가로서의 누가의 고민이기도 하였다. 만일 바울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자신이 기록한 사도행전의 반이 허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기 때문이다. 누가는 바울의 사도성과 함께 사역의 현장에 나타난 사도로서의 증표를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다. 사도로서의 바울의 정체성을 그가 전한 복음의 역사성과 함께 교회 자체가 증거하고 있다. 이메일: covenantcho@yahoo.com

풀러신학대학원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정 능력을 잃은 한국교회”라는 표현을 익숙하게 들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바른 한국교회를 위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대안들이 가능할까요? 많은 이론과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결국 목회자가 절저히 낮아지며 변화되지 않고는 진정한 한국교회의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풀러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은 그런 고민을 담아, 1995년부터 목회자들을 위한 재교육의 현황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학위를 위한 자리가 아닌, 현장목회 가운데 바른 신학적 분별력, 섬김의 리더십, 목회적 역량을 균형 있게 겸비한 목회자로 재무장하며 재현신 할 수 있도록 돕는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은 1)성경연구와 설교, 2)목회상담과 돌봄, 3)신학과 목회와 문화, 이 세 집중분야에서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코스워크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신학이 만나는 이러한 귀한 학습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겨울학기 신학과 목회 강좌(공개세미나)

급변하는 세상에서의 한인 목회자 가정



- 강사 - Jenny Pak 교수

· 풀러신학대학원  
· 임상심리

- 일시: 2월 23일(월) 9:45am-12pm  
- 장소: Payton 301호 강의실  
- 온라인등록: kadmin.weebly.com/wi15tml

학위과정 개요

- 3개의 집중분야를 중심으로  
· 코스워크 : 40학점 · 논문 : 8학점  
· Tuition : 학점당 \$400  
· 재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  
·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여행보조금 지급

정규세미나(입학 후 수강가능)

- 4/6-10 OT745  
목회자를 위한 구약성경신학 / 이경진 교수  
- 4/20-24 CN743  
목회 가정 상담 / 엄예선 교수

